

高敞，竹林里支石墓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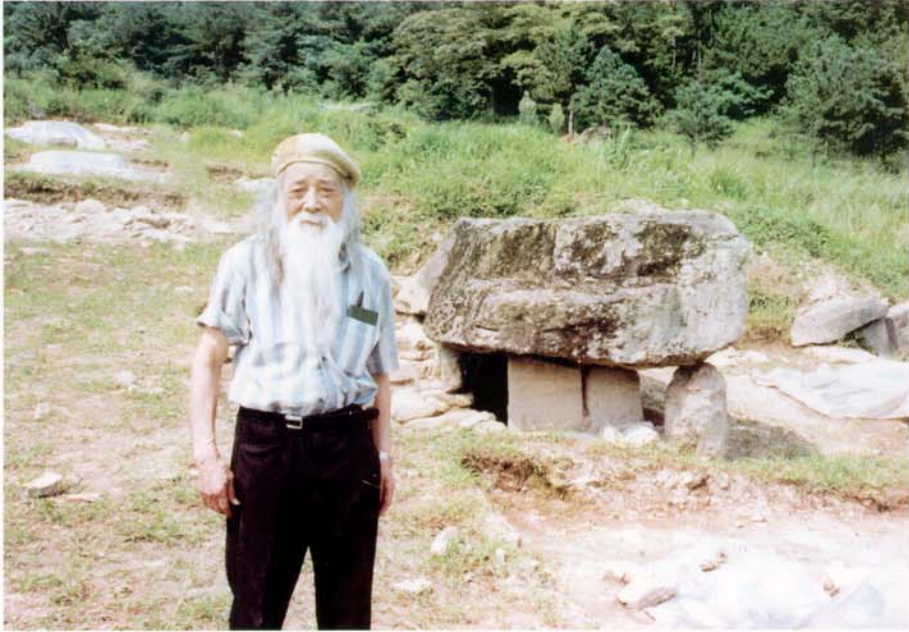
發掘報告書

報告者 全榮來（圓光大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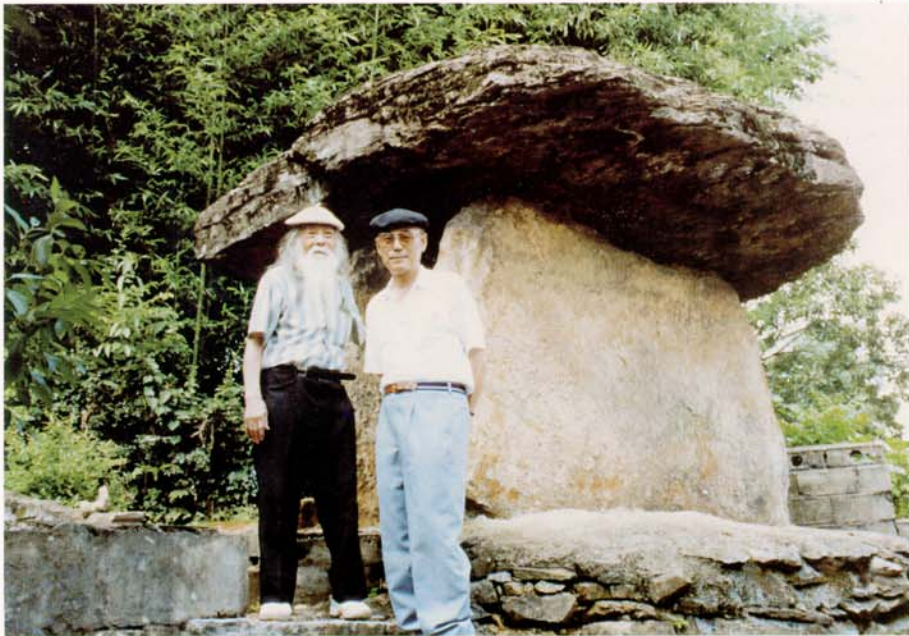
1993

高 敞 郡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 제 2326호 지식묘 앞에서 三宅俊成선생



2. 고창 도산리 북방식 지식묘 앞에서, 三宅俊成선생과 필자



3. 제 2428호 북방식 지석묘



4. 제 2509호 북방식 지석묘

高敞, 竹林里支石墓群 發掘報告書

報告者 全 榮 來(圓光大 教授)

目 次

1. 서언	7
2. 발굴의 경위	7
3. 발굴지역의 개관	8
4. 각론	9
1) 제 I트랜치 ; 2333호	
2) 제 II트랜치 ; 2332호	
3) 제 III트랜치 ; 2331호	
4) 제 IV트랜치 ; 2330호	
5) 제 V트랜치 ; 2329호	
6) 제 VI트랜치 ; 2328호	
7) 제 VII트랜치 ; ① 2327호 ② 2323호	
8) 제 VIII트랜치 ; ① 2326호 ② 2363호 ③ 2325호	
9) 제 IX트랜치 ; 2324호	
10) 제 X트랜치 ; 2322호	
11) 제 XI트랜치 ; ① 2321호 ② 2320호 ③ 2319호	
12) 제 XII트랜치 ; 2318호	
13) 제 XIII트랜치 ; 2317호	
5. 고창, 죽림리 지석묘 발굴완료분 제원일람표	17
6. 총괄	17

〔圖面〕

- 圖1 : 高敞, 竹林里支石墓群 發掘地域位置圖
- 圖2 : 高敞, 竹林里支石墓群 發掘地域平面圖
- 圖3 : 제2333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4 : 제2332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5 : 제2331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6 : 제2330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7 : 제2329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8 : 제2328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9 : 제2327·2323호 발굴 평면도
- 圖10 : 제2327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11 : 제2323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12 : 제2326·2363·2325호 발굴 평면도
- 圖13 : 제2326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14 : 제2325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15 : 제2363호 지석묘 실측도
- 圖16 : 제2324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17 : 제2322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18 : 제2321~2319호 지석묘 발굴 평면도
- 圖19 : 제2321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20 : 제2320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21 : 제2319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 圖22 : 제2328호 지석묘 실측도
- 圖23 : 제2308호 지석묘 실측도

〔寫眞〕

- 표지 컷 : 제2322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권두 컷(1) : 제2326호 지석묘 앞에선
三宅俊成선생
- 권두 컷(2) : 고창 도산리 북방식 지석묘 앞에서
三宅俊成선생과 필자
- 권두 컷(3) : 고창 죽림리 제2328호 북방식 지석묘
- 권두 컷(4) : 고창 죽림리 제2509호 북방식 지석묘
- 사진1 : 지석묘군 발굴전 전경(북에서)
- 사진2 : 지석묘군 발굴전 전경(남에서)
- 사진3 : 발굴후 전경(북에서)
- 사진4 : 제2333호 지석묘 발굴전(남에서)
- 사진5 : 제2333호 지석묘 발굴전(서에서)
- 사진6 : 제2333호 지석묘 발굴전(남에서)
- 사진7 : 제2333호 지석묘 발굴전(북에서)
- 사진8 : 제2333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9 : 제2333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10 : 제2332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11 : 제2332호 지석묘 개석제거후(남에서)
- 사진12 : 제2333호 지석묘부근 발굴후(북에서)

- 사진13 : 제2331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14 : 제2331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15 : 제2331호 지석묘 발굴후(북에서)
- 사진16 : 제2330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17 : 제2330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18 : 제2330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19 : 제2329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20 : 제2329호 지석묘 발굴후(북에서)
- 사진21 : 제2329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22 : 제2328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23 : 제2328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24 : 제2328호 지석묘 발굴후(북에서)
- 사진25 : 제2327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26 : 제2327호 부근 발굴후(서에서)
- 사진27 : 제2327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28 : 제2327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29 : 제2363호 지석묘 청리후(서에서)
- 사진30 : 제2326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31 :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32 :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33 :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34 :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서북에서)
- 사진35 : 제2325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36 : 제2325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37 : 제2325호 지석묘 발굴후(북에서)
- 사진38 : 제2324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39 : 제2324호 지석묘 개석제거후(북에서)
- 사진40 : 제2324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41 : 제2323호 지석묘 발굴전(서에서)
- 사진42 : 제2323호 지석묘 개석제거후(남에서)
- 사진43 : 제2323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사진44 : 제2323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45 : 제2322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46 : 제2322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47 : 제2322호 지석묘 발굴후(북에서)
- 사진48 : 제2321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49 : 제2321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50 : 제2321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51 : 제2320호 지석묘 발굴전(서에서)
- 사진52 : 제2320호 지석묘 개석제거후(북에서)
- 사진53 : 제2320호 지석묘 개석제거후(서에서)
- 사진54 : 제2320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55 : 제2320호 지석묘 발굴후(서에서)
- 사진56 : 제2319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57 : 제2319호 지석묘 매토제거후(동에서)
- 사진58 : 제2319호 지석묘 발굴후(남에서)
- 사진59 : 제2318호 지석묘 발굴전(동에서)
- 사진60 : 제2318호 지석묘 발굴후(동에서)

- 이상 -

1. 서 언

高敞郡은 한반도내에서 가장 조밀한 支石墓群이 分布되어 있는데 그 형식도 다양하다. 지난 1990년도 이 중 上甲里·竹林里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참고문헌2)

高敞邑의 西方 8Km지점에 높이 190~150m의 東西로 뻗은 “성들봉” 이란 百濟時代山城이 있는 산줄기의 南斜面인 上甲里 竹林里일대 동서 약 1,500m에 걸쳐 2지구, 10개 군, 440여 기가 확인되었다. 이 중 梅山마을 북방 雲谷리로 넘어 가는 골짜기의 II-3군은 16기의 支石墓가 대략 2열로 남북으로 뻗어 있는데, 地上에 石槨이 노출된 이른바 北方式으로부터 바둑판형의 南方式에 이르는 다양한 외양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 북방식에서 남방식으로 형식 변천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서 이번 발굴에서는 이곳을 표준 대상지역으로 택하여 그 地下構造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高敞지구뿐만아니라 한반도의 지석묘의 형식변천을 통한 성격을 규명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식케하여 그 지정보존과 학술교류의 자료로 활용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발굴의 경위

1) 발굴기간 : 1991년 5월 21일~ 7월 20일(2개월간)

2) 발굴주관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3) 발굴단의 구성

단 장 : 金三龍 (소장)

지도위원 : 金元龍 (서울대 교수)

尹武炳 (忠南大 교수)

張慶浩 (文化財研究所長)

발굴책임 : 全榮來

조사위원 : 申淳鐵, 金善基

조사원 : 金鐘文 외 5명

3. 발굴지역의 개관

발굴대상지역은 고창군 아산면(雅山面) 관내의 상갑(上甲), 봉덕(鳳德), 죽림(竹林)의 3개리에 걸쳐 지표조사로 확인된 10개군 중의 중앙에 지리한 일부 지역이다. 지석묘군은 대체적으로 15~50m 범위내에 산재하는데 중앙의 산줄기에서 흘러내린 선상대지(扇狀臺地)상에 대체로 2열로 뻗어내린 II-3군의 일부를 택하였다.

발굴대상인 II-3군은 지표조사시에 부여된 고유번호에 의하여 2318호부터 2333호에 이르는 16기이다.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2318호와 가장 윗쪽에 자리한 2333호와의 바닥 지면 높이 차이는 약 11m에 이르며 가장 윗쪽의 위치는 높이 65m 에 이른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략 2열로 뻗어 있는데 서측열은 8기이고 동측열도 8기이나, 아래쪽에 와서는 2319·2320·2321호의 3기가 같은 위석(圍石) 구역내에 밀집되어 있고 중간에 자리한 2326호의 북방에 또 하나의 지석묘가 확인되었다(2363호). 이곳은 거의 북방식으로 보이는 판석을 짜 맞춘 「지상석곽식(地上石槨式)」으로부터 개석의 중량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지탱하기 위한 보조지석을 괴는 형식, 그리고 내부구조가 퇴화하여 단순한 혼적만 남길뿐, 개석을 지석으로만 지탱하는 이른바 남방식, 또는 바둑판식으로의 옮겨 가는 과정이 집약적으로 간추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각 지석묘별로 발굴 상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식 변천이 대략 위로부터 아래로 향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유번호와는 반대로 위로부터 곧, 2333호로부터 살펴나가기로 하겠다.

각 지석묘의 지하구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개석을 중심으로 트랜치를 설정하여 노출 발굴을 실시하였는데, 인접된 지석묘끼리는 하나의 트랜치로 발굴하였으며, 발굴도중 부석이 계속된 지점에 대해서는 트랜치를 연장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발굴지역내의 동서

2열의 지석묘군의 중앙을 관통하는 190도 방향의 기준 종단 축선을 설정하고 5m 평방의 그릿드를 설정하였다. 축선의 북단을 0지점으로 설정하고 매 그릿드마다 S1, S2로 구획하면서 내려가면 가장 이랬쪽에 자리한 2317호까지는 S12그릿드가 된다. 좌우도 역시 동은 E1~E2까지, 서쪽은 W1~W2까지로 구획하였다.

4. 각 론

1) 제 I 트랜치 : 2333호 (도3, 사진4~9)

가장 북단 동편에 있는 그릿드 S1:E1 내에 2333호의 개석을 중심으로 길이 4.5m, 길이 3m의 트랜치를 설정 발굴하였다. 개석의 길이는 2.70m, 폭 최대 1.55m, 북변이 뾰족한 긴 삼각형 형편을 이루는데 장축은 정남·북 방향을 이루고 있다. 두께는 80cm이다. 원래는 지상에 석곽을 짜맞추어 세운 지상 석곽식인데 불완전하였던지 남단에 1개, 북변 양단에 한개씩 도합 3개의 지석을 세워 개석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다. 남단의 지석은 현 높이 55cm이나, 내부 석실 바닥의 깊이를 고려할 때, 70cm는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곽은 역시 남북 장축방향인데, 크기는 길이 1.56cm, 폭 73cm, 높이는 66cm에 이른다. 벽석은 심하게 뒤틀리고 안으로 쓰러진 것도 있다. 동서 측벽은 각 4매의 판석을 짜맞추어 세우고 남북 단벽은 각 1매씩의 판석을 측벽 끝보다 안으로 들이 세워 표(피읍)자형 평면을 이룬다. 서변과 북변 둘레에는 부석이 깔려 있다. 보조지석만 없다면 퇴화된 북방식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예로서 주목된다.

2) 제 II 트랜치 : 2332호 (도4, 사진10~11)

제 I 트랜치와 인접하여 S1:W1그릿드 안에 길이 4m, 폭3m의 트랜치를 설정하였다.

개석 길이 2.06m, 폭 1.0m의 장방형을 이룬다. 두께는 최대 56cm이나, 남변에서는 30cm정도로 얇아져 있다. 장축방향 N30도, 하부 구조는 분명치 않고 둘레에는 약간의

간들이 있을 뿐이다. 개석 밑에는 넓은 돌이 깔려 있으나 벽석이 무너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제 Ⅲ 트랜치 : 2331호 (도5, 사진13~15)

제Ⅲ트랜치의 남쪽에 인접한 S2:W2 그릿드를 발굴하였다. 개석은 거의 7각형에 가까운 넓은 평면으로 길이 2.24m, 최대 폭 1.97m, 두께 52cm이다. 장축 방향은 정남북, 지하 구조는 두께 20cm가 넘는 튼튼한 판석 한장씩으로 4방을 짜맞춘 지상 석곽식이다. 따라서 보조지석은 없고 4매의 벽석 자체가 개석을 괴고 있다.

석곽 역시 거의 남북 방향이나 약간 뒤틀려 있다. 내변 길이 90cm, 폭 60cm, 깊이는 40cm이다. 석곽 내부와 둘레에 막돌을 깔았다.

4) 제 Ⅳ 트랜치 : 2330호(도6, 사진16~18)

제Ⅳ트랜치의 남방 2330호를 중심으로 S3:W3 그릿드안에 4m사방의 트랜치를 설정 발굴하였다. 개석은 길이 2.10m, 폭 1.30m, 두께 50cm의 사다리꼴 평면을 이룬다. 장축은 정남·북방향, 지상석곽식이다. 석실 측벽은 2매씩의 판석을 세우고 남쪽 단벽은 한장의 판석으로 막았으나 결실되어 있고, 북단벽은 2매의 판석을 나란히 세웠으나 서로 뒤틀려 있다. 평면은 ㉠(피음)자형에 가까우나, 동북 측벽석은 결실되었다. 석실의 내변은 길이 1.55m, 폭 60cm, 높이는 40cm이다. 보조 지석은 없으나 북변은 거의 벽석 높이까지 부석이 깔려 있는게 특색이다. 이는 후세 개답과정에서 쌓여진 것 같다.

5) 제 Ⅴ 트랜치 : 2329호(도7, 사진19~21)

제Ⅴ트랜치의 동변에 인접한 S3:E1그릿드 안에 자리한 2329호를 중심으로 길이 4m, 폭 3.5m의 트랜치를 설정 발굴하였다. 개석은 부정형 방형으로서 길이 1.72m 폭 1.20m, 두께는 40cm이다. 장축은 거의 남북방향이나 개석은 하부 석실 유구에서 동남방향으로 밀려나 있다.

보조지석 없이 석실의 벽석 자체가 개석을 괴고 있는 지상 석곽식인데 개석에 비해 벽석은 두께 10cm 미만의 얇은 판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벽이나 측벽의 판석이 모두 심하게 기울어 있다. 측벽은 3매씩의 판석을 세웠고, 단벽은 1매씩의 판석으로 막았다. 석실의 벽석은 단벽은 북쪽으로 기울고 측벽은 안으로 기울고 거의 문혀 있으나 석실의 주변에는 부석을 깔았다. 석실의 길이는 1.6m, 폭 44cm, 깊이 42cm내외로서 장축은 정남·북 방향이다.

6) 제Ⅵ 트랜치 : 2328호 (도 8 사진 22~24)

S5:W1~2그리드에 걸쳐 있는 2328호 개석을 중심으로 제Ⅵ트랜치를 설정하고 길이 5m, 폭 4m의 넓이를 발굴하였으나 지하 시설을 노출시키는 과정에서 북방으로 4m를 연장하고 다시 폭을 6m로 넓혔다.

이 결과 2328호의 북방에 약 3m평방의 넓이에 걸쳐 돌무지가 나타났다. 이는 이곳에도 지석묘가 자리했었으나 개석이 제거되고 지하구조도 파괴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2328호의 개석은 길이 3.12m, 폭 1.32m, 두께는 남변에서 최대 83cm 북변은 70cm로 좁혀졌는데, 거의 남북 방향 장축을 이룬 장방형 평면이다. 지석과 벽석은 약 30cm 지상으로 노출된 지상 석곽식이다. 석실보다 개석 길이가 앞뒤로 길게 뻗어 있으므로 개석을 지탱하기 위한 보조 지석을 괴고 있다. 보조 지석은 남동부와 남서부에 각 1개씩 석실 북변은 동쪽에 1개, 이보다 약 60cm 떨어진 북방에 1개를 괴었다.

석실은 개석 남쪽에 치우쳐 서측 벽은 2매, 동측 벽은 1매, 그리고 앞뒤 단벽은 각각 1매씩의 판석으로 짜맞추었다. 동측벽의 벽석은 길이 1.15m, 두께 24cm의 튼튼한 판석으로 따라서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석실 내변의 길이는 84cm, 폭 50cm, 현 깊이는 20cm이다.

7) 제Ⅶ 트랜치 : 2327호, 2323호(도 9~11, 사진 25~ 28, 41~44)

제Ⅵ트랜치를 남으로 연장하여 2328호와 1m 간격을 두고 있는 2327호를 중심으로

노출시켰다. 2323호와 개석은 이보다 남방 1.6m 지점에 있어 이 두 개석을 포함하여 길이 8m를 연장시켰다.

① 2327호 : (도 10, 사진 25~28) 개석은 길이 2.24m, 폭 1.40m 두께 60cm로서 장방형 평면을 이룬다. 장축은 정남북 방향인데, 벽석이 지상 45cm 가량 노출된 지상 석곽식이다. 주변에는 바닥돌을 깔았는데 서변은 돌이 쌓여있다. 이는 후세에 논을 개답하면서 막돌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석곽 측벽은 판석 2매씩으로 조립하고 있는데 동측 벽석은 제거되었다. 서측벽은 길이 1.2m, 두께 24cm의 판석을 세우고 그 북쪽 여백은 길이 40cm의 판석을 막아 세웠는데 뒤틀려 있다. 남변 단벽은 1매의 판석을, 북변 단벽은 2매의 판석을 세워 막았는데, 석실 내변의 길이는 1.35m, 폭 64cm, 깊이 55cm이다. 석실 주변과 바닥에는 부석을 깔았다.

② 2323호 : (도 11, 사진 41~44) 2327호 개석의 남방 1.6m를 사이에 두고 있다. 개석 길이 2.20m, 남변 폭 1.35m이나, 북단에서는 폭 60cm의 사다리꼴 평면을 이룬다. 두께는 60cm 장축은 서북 34도 방향이다. 그러나 석실은 정남북 방향이다. 석실 북단은 지상 20cm 가량 노출된 지상 석곽식이다. 아직 보조지석은 사용하지 않고 벽석만으로 개석을 지탱하고 있는데 앞뒤 단벽의 벽석이 안으로 기울었다. 특히 남쪽 단벽석은 심하게 안으로 쓰러져 개석도 균형을 잃고 남변으로 기울어졌다. 북단벽은 판석을 깊이 세우지 않고 작은 기단석위에 2단으로 올려 놓아 당초부터 불안정한 상태이다. 둘레에는 보강하는 부석을 깔았다.

측벽은 판석을 세운 동북변을 제외하면 자연활석을 3~4단으로 겹쌓았는데 벽석의 대부분은 결실되었거나 안으로 기울었다. 석실 길이는 1.68m, 폭 60cm, 깊이 60cm이다.

8) 제 VIII 트랜치 : 2326호, 2363호, 2325호 (도 12)

정중선을 사이에 두고 2327호와 나란히 2개의 개석이 자리한다. 이 두 개석을 중심으로 S6:E1.E2 그릿드를 설정 폭 8m, 길이 5m 범위를 발굴하였다.

그러나 2326호의 북방에 지표조사시 누락된 개석 1개가 있었으므로 북으로 길이 3m

를 연장하였으며 개석은 들어내지 않고 바닥만을 노출시켜 조사하였다. 2327호와 2326호는 3.5m 떨어져 있고, 2326호와 2325호는 1.6m 떨어져 있다.

① 2326호 (도 13, 사진 30~34)

개석 길이 3.20m, 폭은 남변이 1.75m 북변에서는 약 70cm의 사다리꼴을 이룬다. 개석 두께는 90cm, 장축방향은 정남북이다. 개석 아래에는 동남우와 북변에 굵은 기둥꼴의 보조지석을 세워 개석을 지탱하고 있다. 북단의 보조지석은 길이 50cm, 두께 약 30cm로서 석실 바닥보다는 60cm 높다.

석실은 지석과 함께 지상 50cm 정도 노출된 지상 석곽식이다. 석곽은 4벽 기단은 2~3단의 막돌을 겹쌓올리고 그 위에 두께 20cm 내외의 비교적 두꺼운 판석을 평면 표(피읍)자형으로 짜맞추었는데, 동측벽은 판석 2매를 세웠으나 북반은 2단으로 쌓았다. 서측벽은 북반의 판석만 남아 있다. 남반은 벽석이 결실되었으나, 모두 기단부는 잔돌을 쌓아 올렸다. 북쪽 단벽은 1매의 판석으로 막았으나, 동쪽 끝은 측벽보다 앞으로 내밀어 있다. 남측 단벽은 2매의 판석을 세웠는데 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석실 내변은 길이 1.57m, 폭·길이 모두 60cm에 이른다. 석실 주변에는 넓은 판석을 깎 부석시설이 있다.

② 2363호(도15, 사진 29)

개석 남단은 2326호의 북단과 1.2m 떨어져 있다. 개석은 수직으로 높은 편이고 폭은 좁아 처음 지표조사에서 제외되었었다. 이를 2363호로 부르기로 한다. 길이는 2.4m, 밑폭 1.2m이고 윗면 폭은 70cm로 좁아졌다. 높이는 1.04m. 남단과 북단 아래 판석이 쓰러져 있고, 동변에 부석이 깔려 있으나 지하구조는 알 수 없다.

③ 2325호 (도 14, 사진 35~37)

개석길이 1.70m, 최대폭 1.05m, 두께 48cm의 장방형 평면인데 남단으로 가면서 얇아져서 두께는 15cm로 줄었다. 장축은 정남·북 방향, 석실의 동측벽은 3매, 서측벽은 2매의 판석을 세웠는데, 심하게 뒤틀리고 쓰러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북 단벽은 20~30cm 두께의 1매 판석의 벽석으로 막았다. 이가 개석의 무게를 지탱하는 지석을 겸하고 있다. 남벽은 지상에서 약 40cm 노출되어 있는 지상 석곽식이다. 석실 역시 장축

남북 방향인데, 석실 내변의 길이는 1.30m, 폭 60cm, 깊이는 40cm 내외이다. 개석 동변에는 막돌들이 흩어져 있다.

9) 제 Ⅸ 트랜치 : 2324호 (도16, 사진38~40)

2326호 개석의 정남방 약 2m를 사이에 둔 2324호 개석을 중심으로 S7:E1 그릿드에 길이 5m, 폭 3m의 트랜치를 설치 하였다.

개석 길이 3.10m, 최대폭 1.60m 두께 50cm로서 장축 남북방향이다. 개석아래 3개의 보조 지석을 권 지상석곽식이다.

석실의 측벽은 3~4매의 판석으로 조립하고, 앞뒤 벽은 한장으로 막았으나 매우 혼란스럽다. 동변은 어느 정도 벽석이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으나 서측벽은 판석은 제거되고 막돌만이 쌓여 있다. 남북 단벽은 1매씩의 판석을 막았으나, 모두 남쪽으로 쓰러졌다. 북단벽의 바깥쪽 동북우에 1개의 보조지석을 괴고, 남변 개석 아래에도 1개의 보조지석을 괴었다. 석실 내변의 크기는 길이 1.30m, 폭 66cm, 깊이 50cm이다.

10) 제 Ⅹ트랜치 : 2322호 (도17, 사진 표지컷 및 45~47)

2323호 개석의 남방 7.3m를 사이에 두고 있다. S8:W1 그릿드 내에 길이 4m, 폭 3m의 트랜치를 설정하였다. 하부 구조가 노출되어 있으므로 개석은 제거하지 않고 발굴하였다. 개석은 길이 2.75m, 최대폭 1.52m의 사다리꼴 평면인데, 두께는 60cm, 장축은 정남·북 방향이다. 순전히 벽석만으로 개석을 권 지상석곽식이다. 남변은 50cm, 북변은 25cm까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석실은 남북 단벽은 길이 45~50cm의 판석 1매씩을 세웠고, 양측벽은 각 3~4매의 판석으로 조립하였다. 서측벽은 남으로부터 길이 45cm, 75cm, 30cm의 판석을 나란히 세우고 그 중간의 틈을 폭 15cm의 좁은 판석으로 메웠다. 동측벽 역시 넓은 2매의 판석을 세우고 그 중간의 틈을 한장의 판석으로 메웠다. 그 중 남쪽 벽석은 길이 45cm, 남쪽 단벽석의 밖으로 물려 세워졌다. 북쪽 벽석은 길이 90cm인데 완전히 안으로 쓰러져 일

견 석실 바닥돌처럼 보인다. 그 중간의 틈을 막았던 폭 12cm정도의 좁은 벽석도 안으로 쓰러져 있다.

석실의 내변은 길이 1.60m, 폭 65cm, 깊이 60cm인데, 약보고에서 주실과 부실로 구분하고 판석을 깔았다고 한 것은 착각이므로 정정한다.

11) 제 XI 트랜치 : 2321호 · 2320호 · 2319호. (도 18)

제 X 트랜치의 동편에 3개의 개석이 있으므로 S8:E1그리드에 걸쳐 길이 6m, 폭 5m의 트랜치를 설정, 발굴하였다. 개석은 정중선 가까이에 2321호가 있고 약 2.5m를 사이에 두고 그 동쪽에 2320호, 그 중간 남쪽 약 1.5m 떨어져 2319호가 있다.

발굴결과 이들 3기의 지석묘는 거의 인접해 있으나 제마다 비슷한 부석 시설이 있으며 개석도 제자리로부터 이동되고 석실도 파괴가 심하였다. 그러나 모두 원래는 지상 석곽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실은 모두 두꺼운 판석을 이용하고 있어 벽석 자체가 지석을 겹하는 지상 석곽식이므로 따로 보조지석은 없다.

① 2321호 (도19, 사진 48~50)

개석 길이 2.50m, 폭 1.0m, 두께 65cm인데 남쪽으로 기울었다. 발굴 결과 개석은 서쪽으로 이동되어 있었다. 장축은 정남·북 방향, 주변에는 부석을 갈아 석실을 보호하고 있다. 석실의 장축 역시 정남·북 방향, 석실 내변의 길이는 80cm, 폭 50cm, 깊이 45cm의 소형이고 벽면은 자연 활석을 겹쌓았다. 매우 교란된 상태이다.

② 2320호(도20, 사진 51~55)

개석 길이 1.90m, 폭 1.70m, 두께 60cm로서 반월형에 가까운 비교적 넓은 평면을 이룬다. 장축 역시 정남·북 방향이다. 벽석이 지상 20cm 가량 노출된 지상 석곽식인데, 주변과 석실 바닥에 부석을 깔았다.

석실은 거의 남북 방향이며 내부는 교란되어 있다. 벽면은 판석을 세우거나 활석을 겹쌓았는데 한쪽으로 기울었다. 석실 규모는 길이 1.60m, 폭 70cm, 깊이 50cm이다. 잘 남아 있는 서측벽은 3매의 장대석을 늘어세웠는데 남으로부터 길이 70cm, 50cm, 50cm로서 두께는

25cm 이상이다. 석실의 가구는 매우 조잡하여 부안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지석식 지석묘에 옮겨가는 과도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예이다. 「다지석식(多支石式)」이란 「지상석곽식」에서 볼 수 있는 보조지석으로부터 석실의 퇴화 결과 발생한 남방식 지석묘와는 달리 지상형 석실 벽석 자체가 퇴화하여 개석을 지탱하는 지석의 기능으로 바뀐 형식을 말한다.

③2319호 (도21, 사진56~58)

개석은 길이 1.60m, 폭 1.16m, 두께 40cm의 장방형으로서 장축 정남북 방향이다. 부석이 쌓이고 석실내부는 교란되어 있으나, 원래는 지상석곽식이 퇴화된 것이다. 석실은 자연 활석을 겹쌓았는데 내변 길이는 80cm, 폭 60cm, 깊이 30cm 내외이다. 2320호와 같이 벽석은 굵고 남북 단벽의 가구는 애매하며 다지석식 지석묘에 옮겨가는 과도적 형식을 엿볼 수 있다.

12) 제 XII 트랜치 : 2318호 (도22, 사진 59~60)

제 X 트랜치의 남방 17.5m 떨어져 2318호 개석이 있다. 개석을 중심으로 S10:W1~S11:W1 그릿드에 걸쳐 길이 4m, 폭 3m의 트랜치를 설정하였다.

개석은 길이 1.40m, 폭 1.15m, 두께 50cm이며 장축은 동남 47도 방향이다. 네 귀에 지석을 괴었을 뿐 지하시설은 없다.

13) 제 XIII 트랜치 : 2317호

2318호의 남방 약 10m 떨어져 1기의 개석이 자리한다. S12:W1 그릿드 안에 자리하는데 외견상 지하구조가 인지되지 않으므로 발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석의 길이는 2.63m, 최대폭 2.0m, 두께는 80cm 내외. 동변은 직선을 이루나 서변은 가운데가 넓어져 3각형에 가깝다.

지하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다. 다른 곳에서 이동된 것은 틀림없으니 아마도 지석묘 축조를 위해 예비적으로 옮겨다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발굴된 지석묘의 제원은 다음 일람표와 같다.

5. 고창, 죽림리 지석묘 발굴완료분 제원 일람표

號數	蓋石 (길이×폭×두께)	方向	支石	型式	石室 (길이×폭×깊이)
2333호	(270×155×80)	정남북	2支石	地上石槨式	(156×73×66)
2332호	(260×100×56)	N30도	無支石	형식불명	불명
2331호	(224×197×52)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90×60×40)
2330호	(210×130×50)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155×60×42)
2329호	(172×120×40)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160×44×42)
2328호	(312×132×83)	정남북	4支石	地上石槨式	(84×50×20)
2327호	(224×140×60)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135×64×55)
2326호	(320×175×90)	정남북	2支石	地上石槨式	(168×60×60)
2325호	(170×105×48)	정남북	2支石	地上石槨式	(130×60×40)
2324호	(310×160×50)	정남북	3支石	地上石槨式	(130×66×50)
2323호	(220×135×60)	w70도	無支石	地上石槨式	(168×60×60)
2322호	(275×152×60)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160×65×60)
2321호	(250×100×65)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80×50×45)
2320호	(190×175×60)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160×70×50)
2319호	(160×116×40)	정남북	無支石	地上石槨式	(80×60×30)
2318호	(240×115×50)	N47도	불명	불명	없음
2317호	(263×200×80)	정남북	불명	불명	없음

6. 총괄 (성격의 고찰)

이번 고창, 죽림리의 발굴 대상지역은 산 남사면 경사면에 군락하는 17기중 16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90년도의 지표조사결과 이 산줄기 남사면에는 동서폭 1.5Km에 걸쳐 총 460여 기의 지석묘가 확인된 지역의 일부를 발굴대상으로 택한 것이다. (참고문헌1)

발굴대상으로 한 지역 Ⅱ-3군(群)중 2317~2333호에 이르는 지석묘군은 남북2열로 줄을 짓고 군재한다. 이들은 대체로 북방식인 지상 석곽식으로부터 보조지석을 괴는 과도기적인 형식이 병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변의 지표조사분을 포함하여 지석묘의 혁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제Ⅰ類型：地上石槨式(無支石式) 지상에 한장의 측벽석과 단벽석을 짜 맞추어 그 위에 개석을 얹은 것. (이른바 북방식 또는 탁자식이다) 고창, 도산리(道山里)지석묘가 이에 속하다. (권두사진2)

② 제Ⅱ類型：地上石槨式 지상에 한장씩의 벽석을 짜 맞추어 개석을 얹었는데 석곽벽석만으로는 개석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므로 보조지석(補助支石)을 괴는 것. (후세에 추가할 수도 있다. 북방식의 범주에 포함된다.) 죽림리 Ⅱ구역 제4군 28호(2428호)가 이에 속한다. (권두사진3, 도22)

③ 제Ⅲ類型：地上石槨式(無支石式) 지상에 몇장의 판석을 조합하여 석곽을 짜고 그 위에 개석을 덮은 것. 보조지석을 괴지 않은 것. 북방식 지석묘의 측벽석이 2매 이상의 판석으로 조립되었다. 2331호·2330호·2329호·2327호가 이에 해당한다.

④ 제Ⅳ類型：地上石槨式(補助支石式) 지상에 몇장의 판석을 조립하여 석곽을 짜고 개석을 덮었으나, 개석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하여 복수의 보조 지석(支石)을 괴는 것. 2328호·2326호·2324호가 이에 해당한다.

⑤ 제Ⅴ類型：地上石槨式(多支石式)

지상에 석곽을 세웠으나 벽석이 퇴화하여, 사이가 벌어져 지석으로서의 기능만이 남아, 이른바 다지석식인 남방식 지석묘처럼 보이는 것. 2320호가 이에 해당한다.

⑥ 제Ⅵ類型：地上石槨式(支石式) 개석이 대형화 됨에 따라 지상에 가구된 석곽구조는 퇴화되고 개석은 순전히 복수의 지석만으로 지탱한 것. 지하 석곽구조가 있는 남방식 지석묘와는 달리 지상에 퇴화된 석곽구조를 간취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2308호

를 들 수 있다.

이 지석묘는 발굴지역의 최남단인 2317호에서 약 30m 아래 쪽에 자리하는데 이러한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2308호의 개석은 지금까지의 발굴된 지석묘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 길이 3.98m에 폭 1.10m, 두께1.24m의 장방형 평면으로서 밑바닥이 약간 들린 형태이다.

장축방향 역시 정남북이다. 이 개석은 4개의 튼튼한 지석으로 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기단석위에 별석을 끼워 높이를 조절한 것도 있다. 현 지상높이는 25cm 정도이나 주변 경작으로 매몰되어 있다.

그런데 하부 석곽구조는 서측의 2개 벽석과 이에 접한 북벽석 1매만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벽석도 심하게 뒤틀려 있으나 지상에 설치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는 벽석 자체가 개석을 받치던 기능에서 멀어졌으나 역시 지상에 설치했다는 점에서 지상 석곽식의 범주에 속한다.

이처럼 이곳 고창 죽림리는 북방식으로부터 남방식에서의 형식 이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지석묘의 형식학적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급한 보존조치가 요망된다. (끝)

[참고문헌]

- 1,全榮來:「高敞, 雅山地區支石墓發掘報告書」全州市立博物館, 1984.
- 2,全榮來:「高敞, 竹林里一帶支石墓群地表調查報告書」圓光大, 1992.
- 3,全榮來:「韓半島支石墓の型式學的展開」〔九州考古學 第66號〕1991. 福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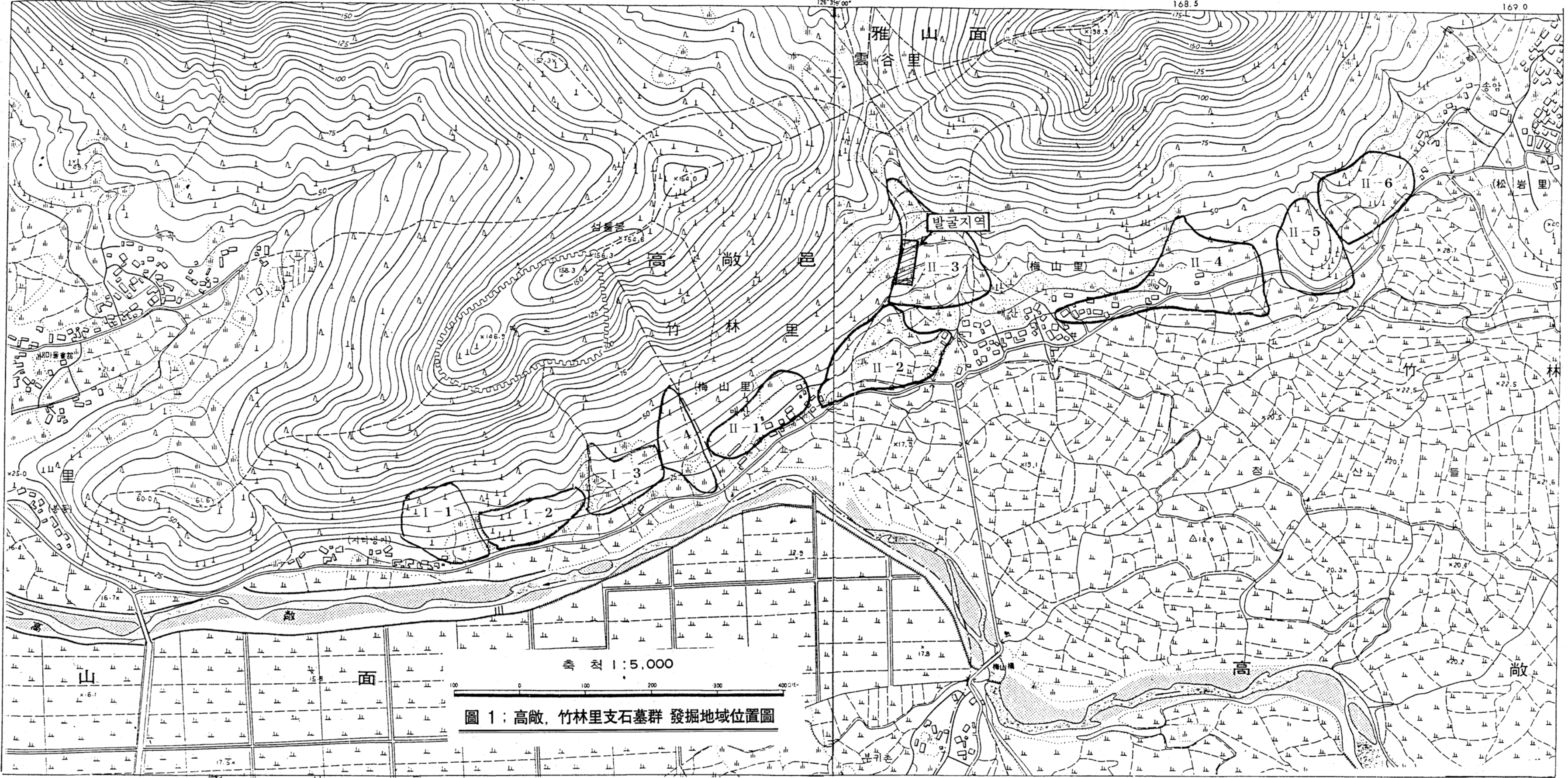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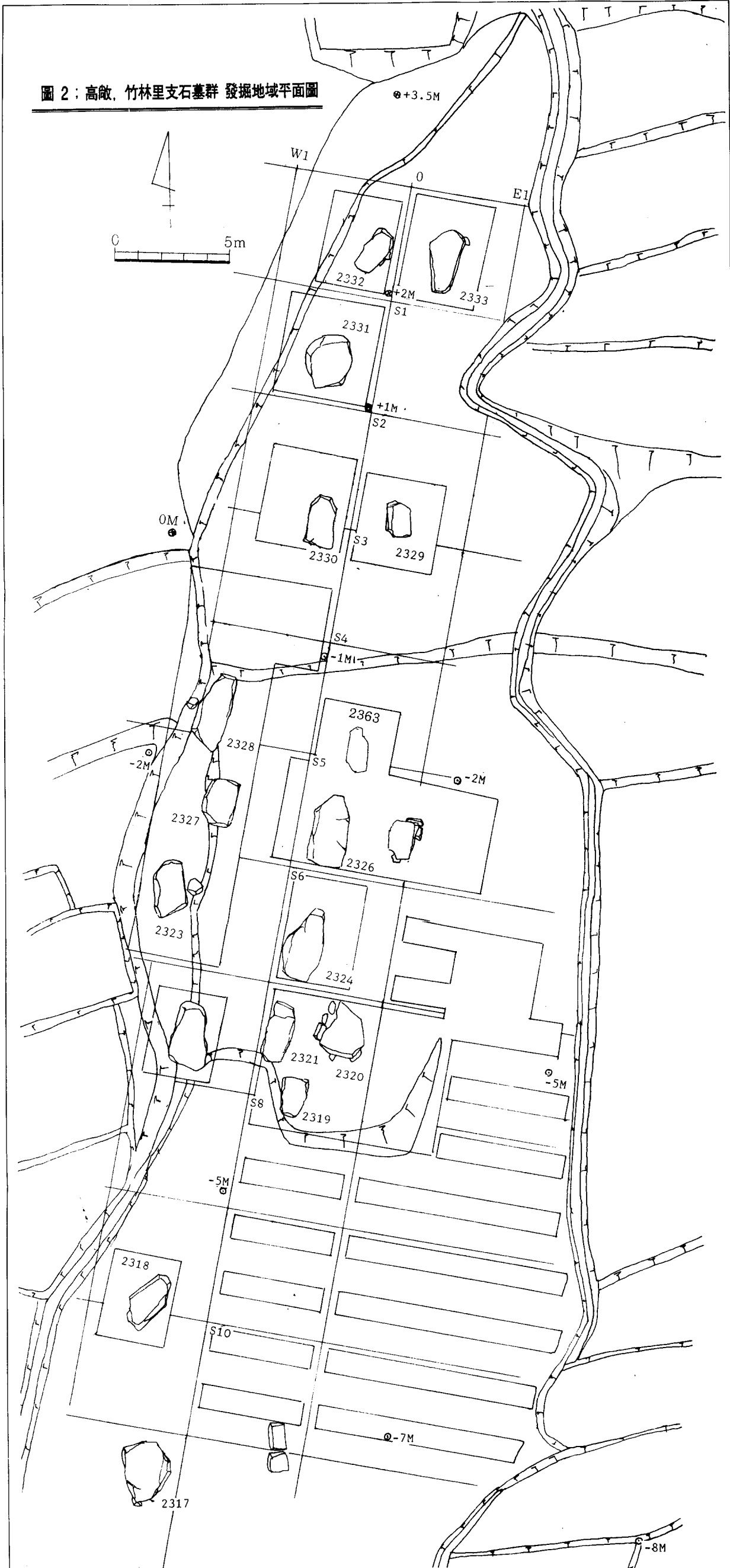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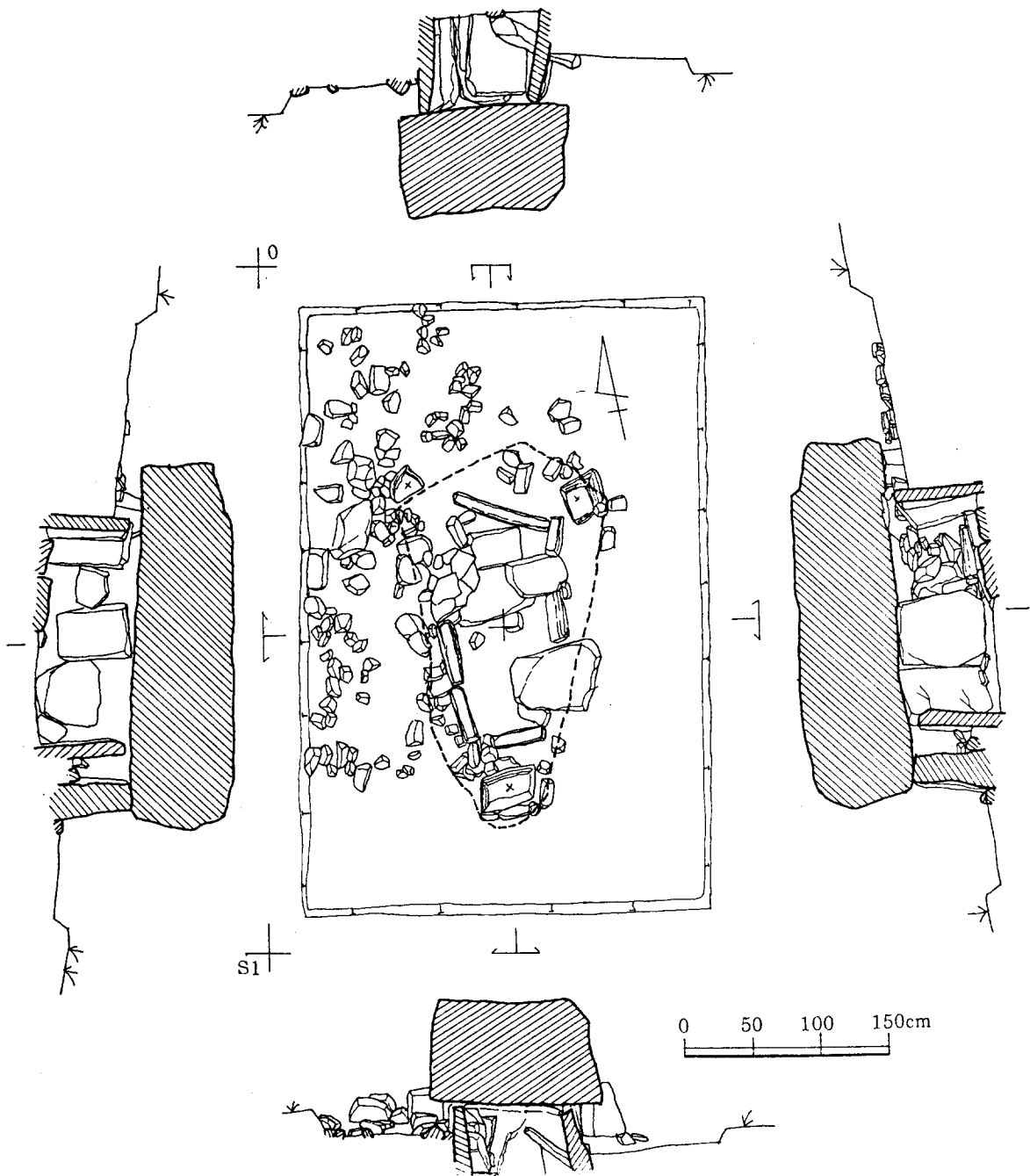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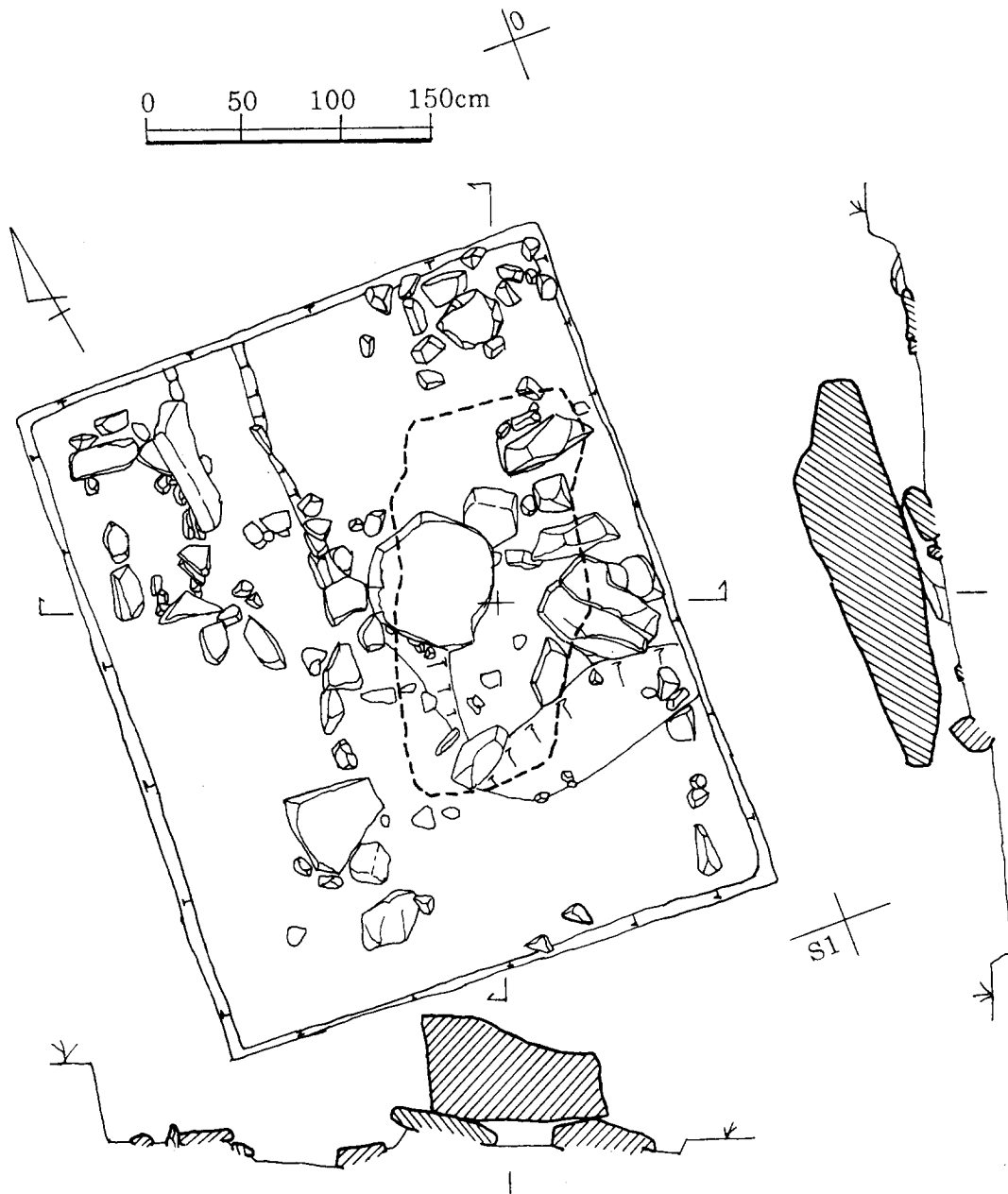
圖 1 ; 高敞, 竹林里支石墓群 發掘地域位置圖

圖 2：高敞，竹林里支石墓群 發掘地域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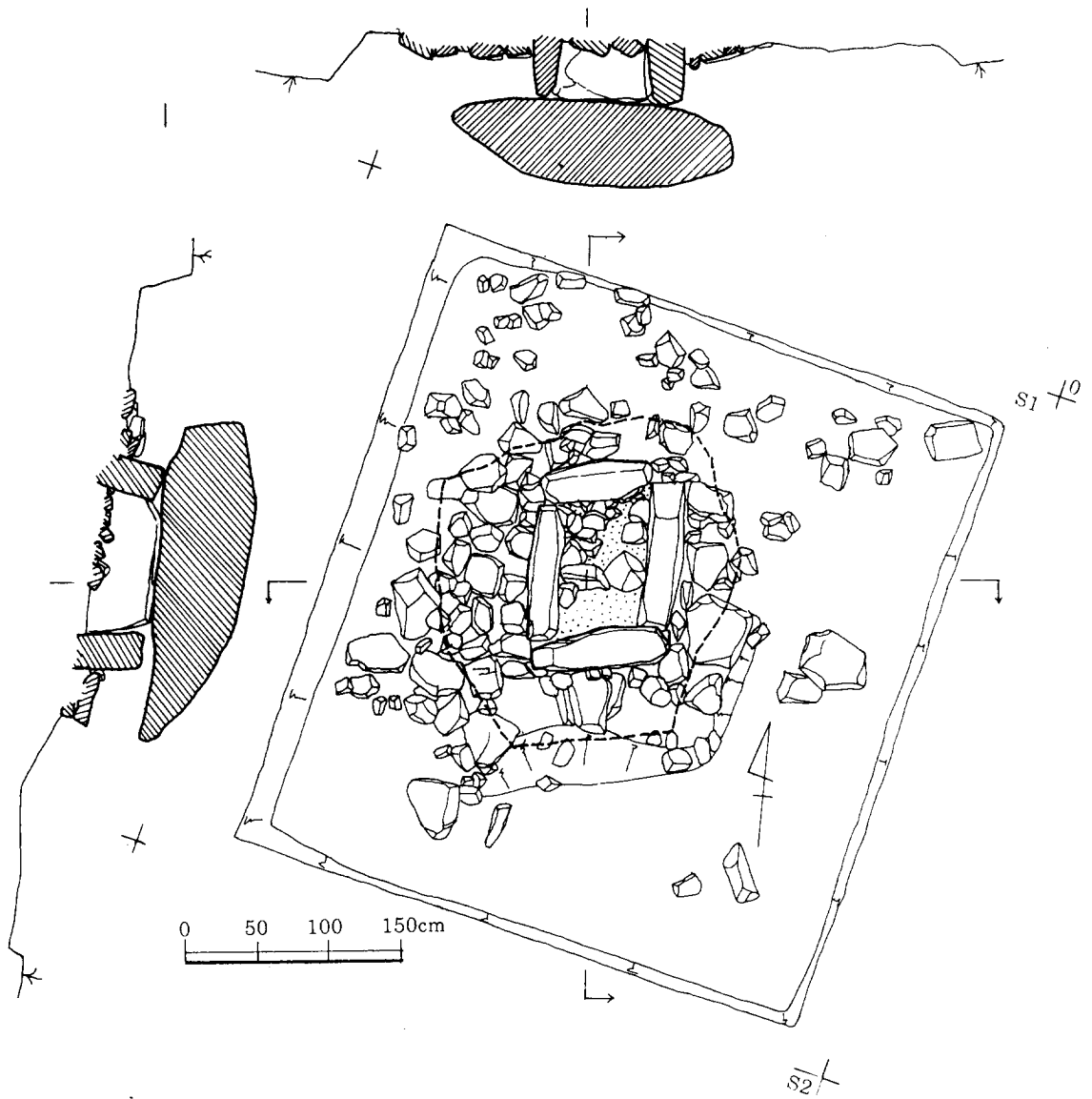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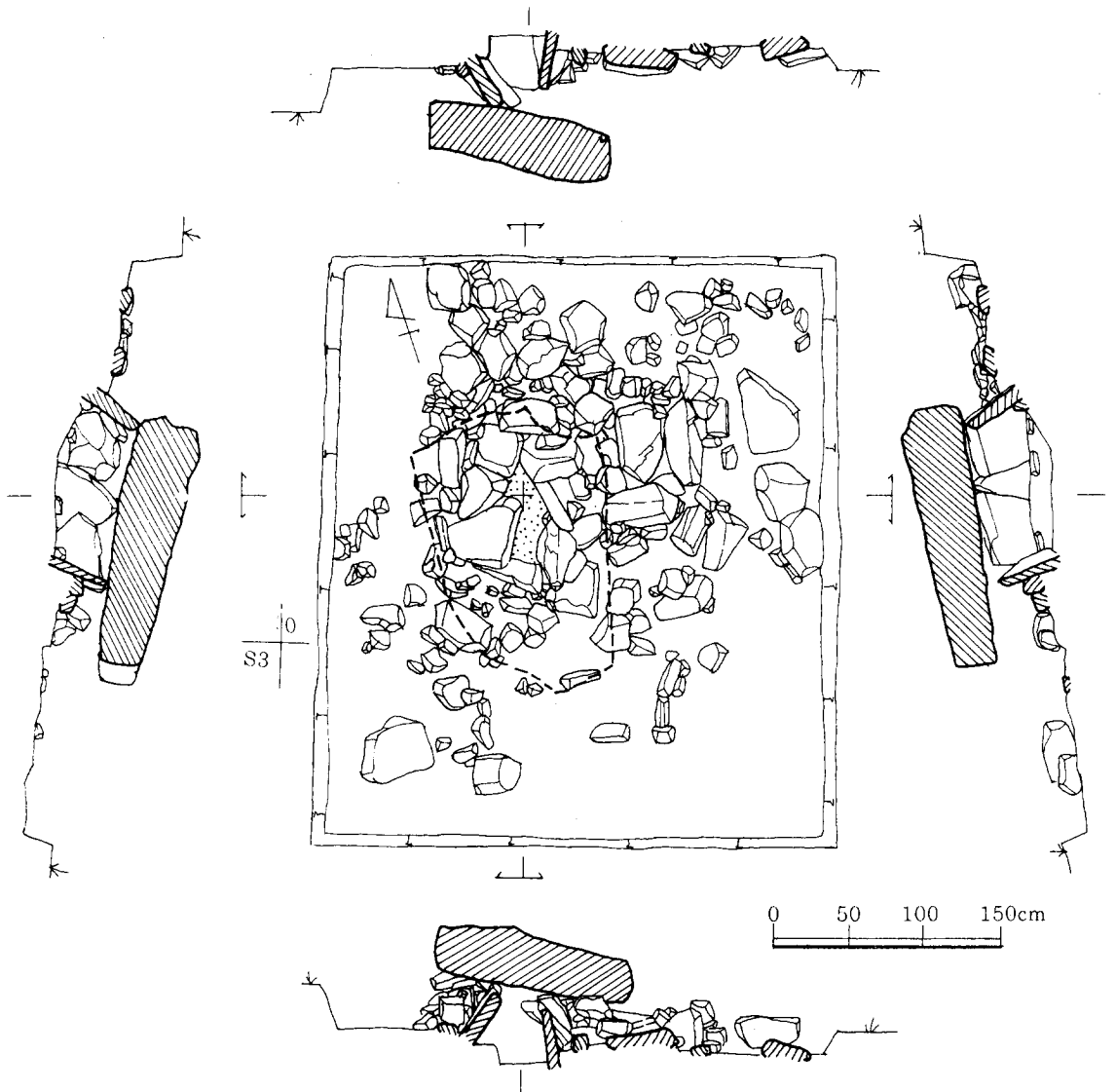
도 3 : 제2333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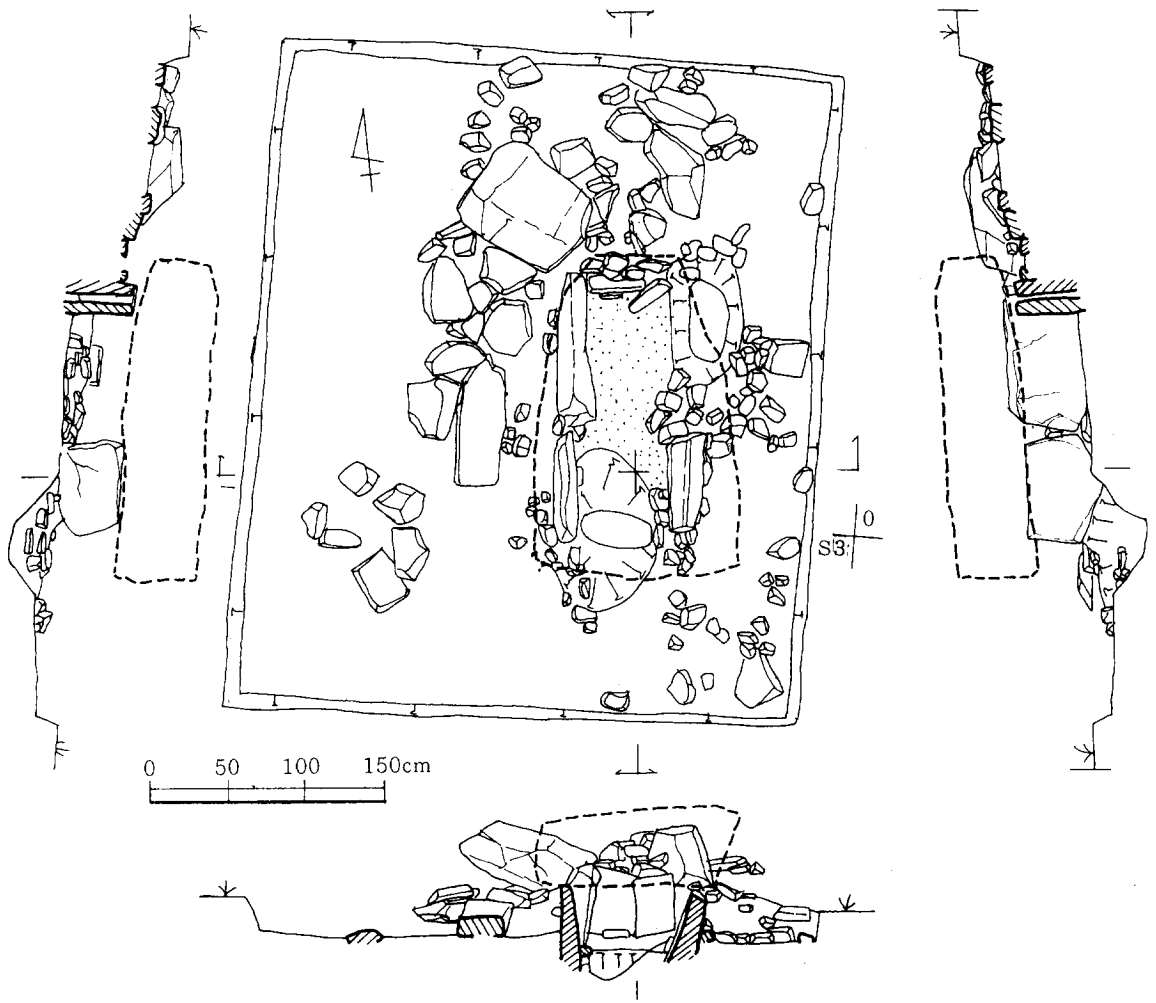
도 4 : 제2332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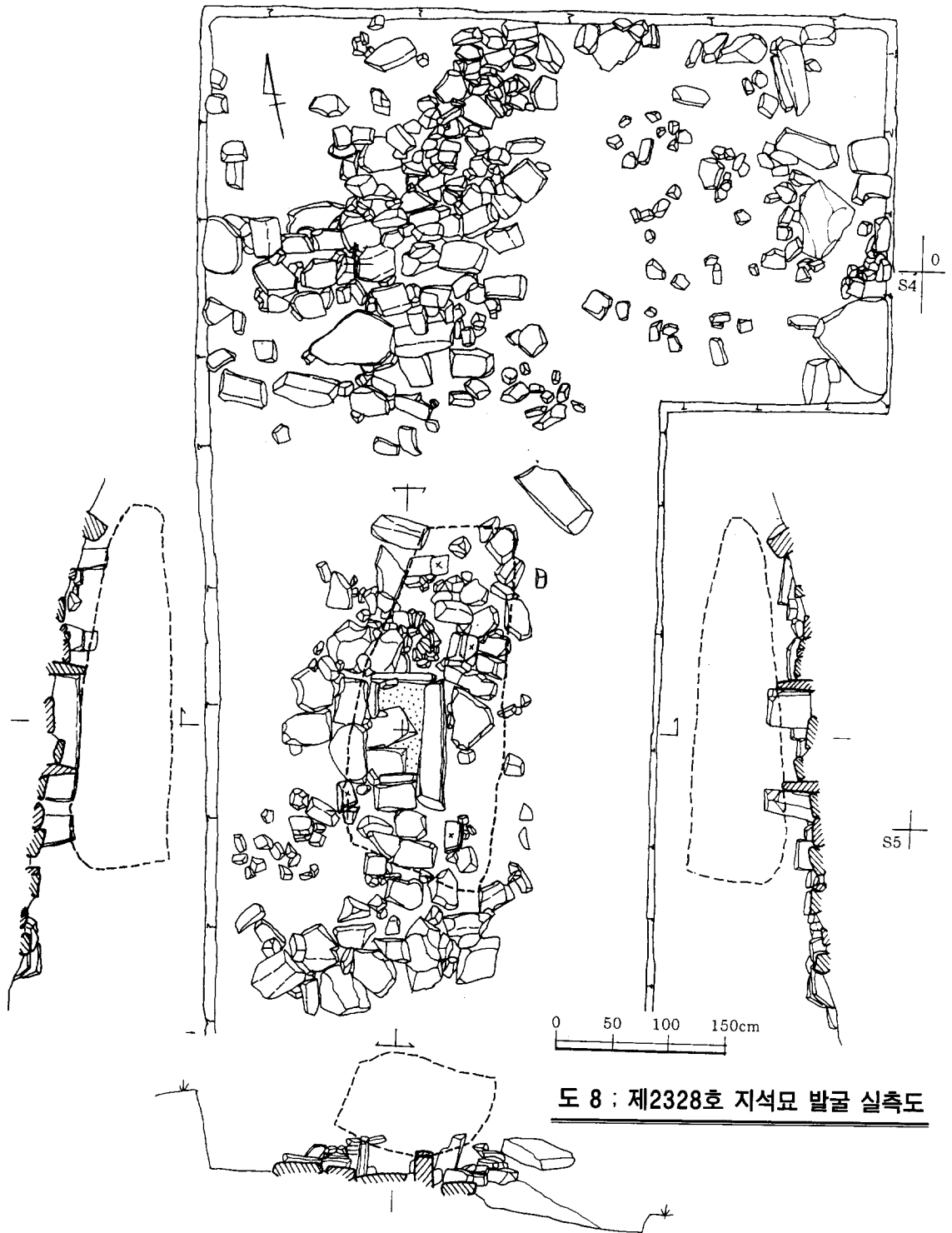
도 5 : 제2331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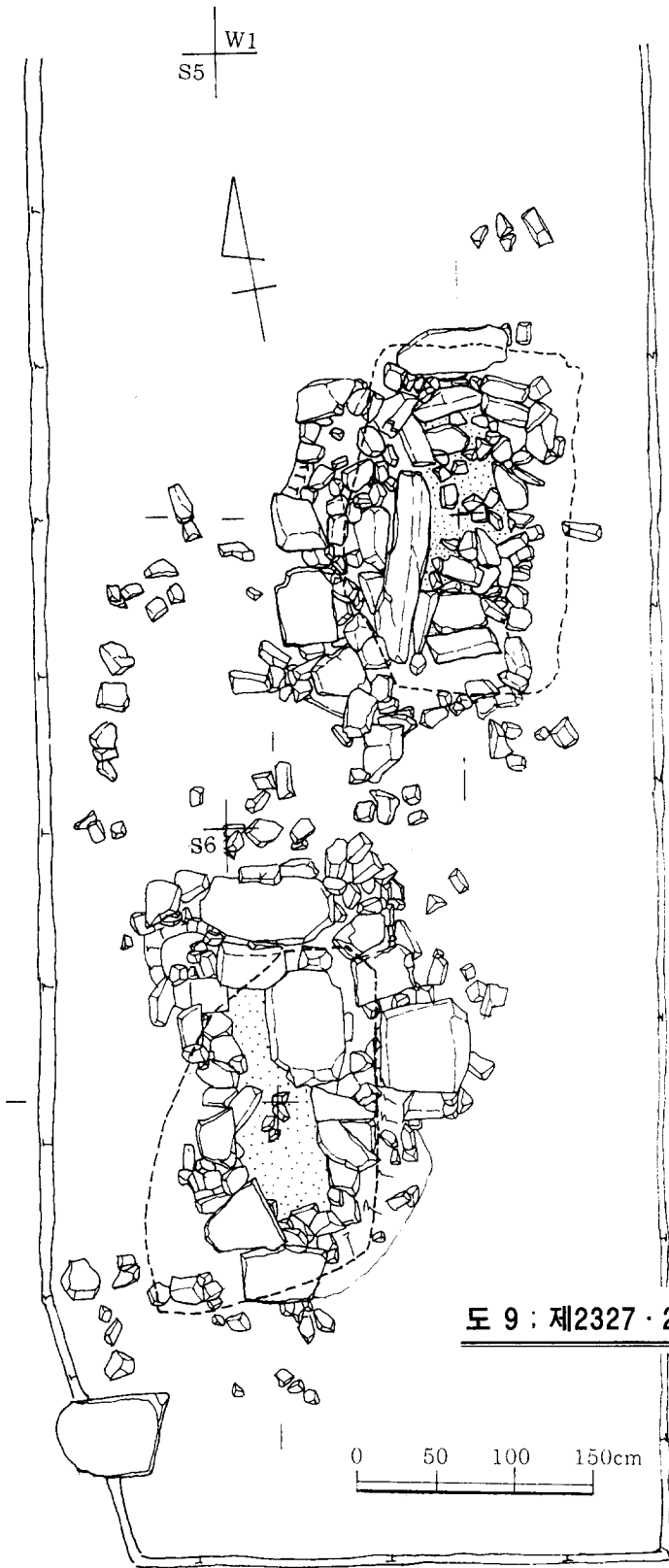
도 6 : 제2330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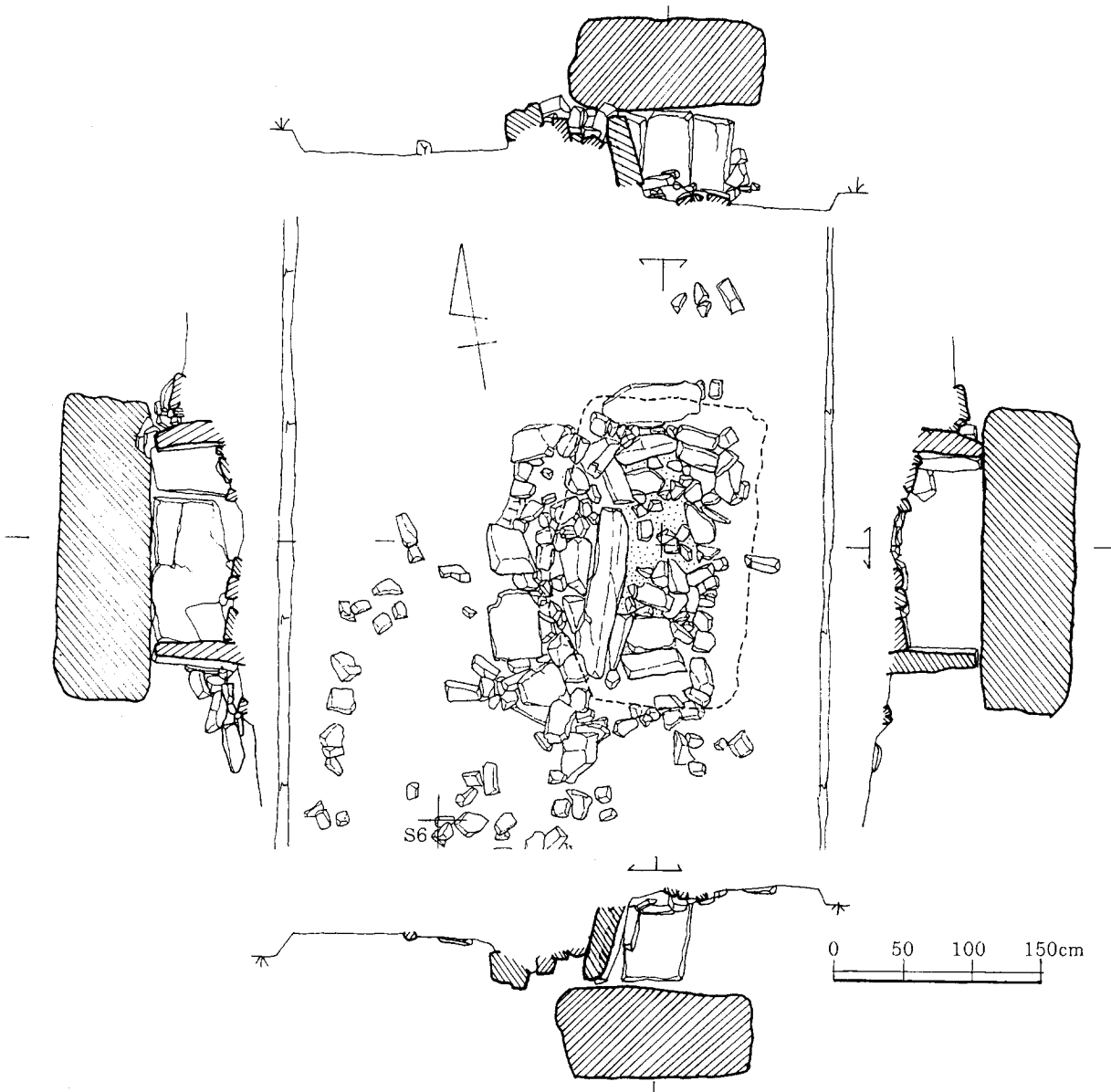
도 7 : 제2329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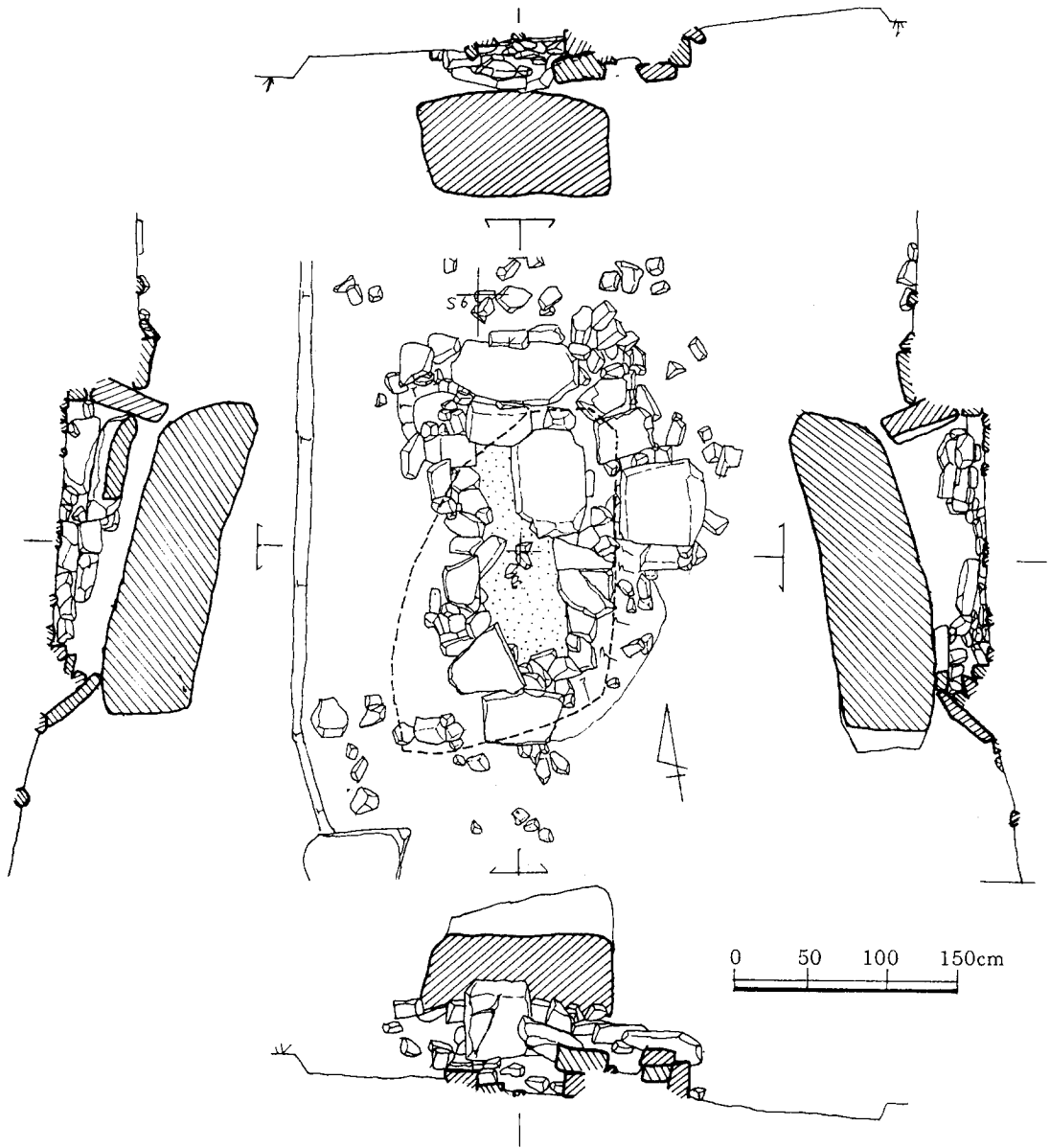
도 8 ; 제2328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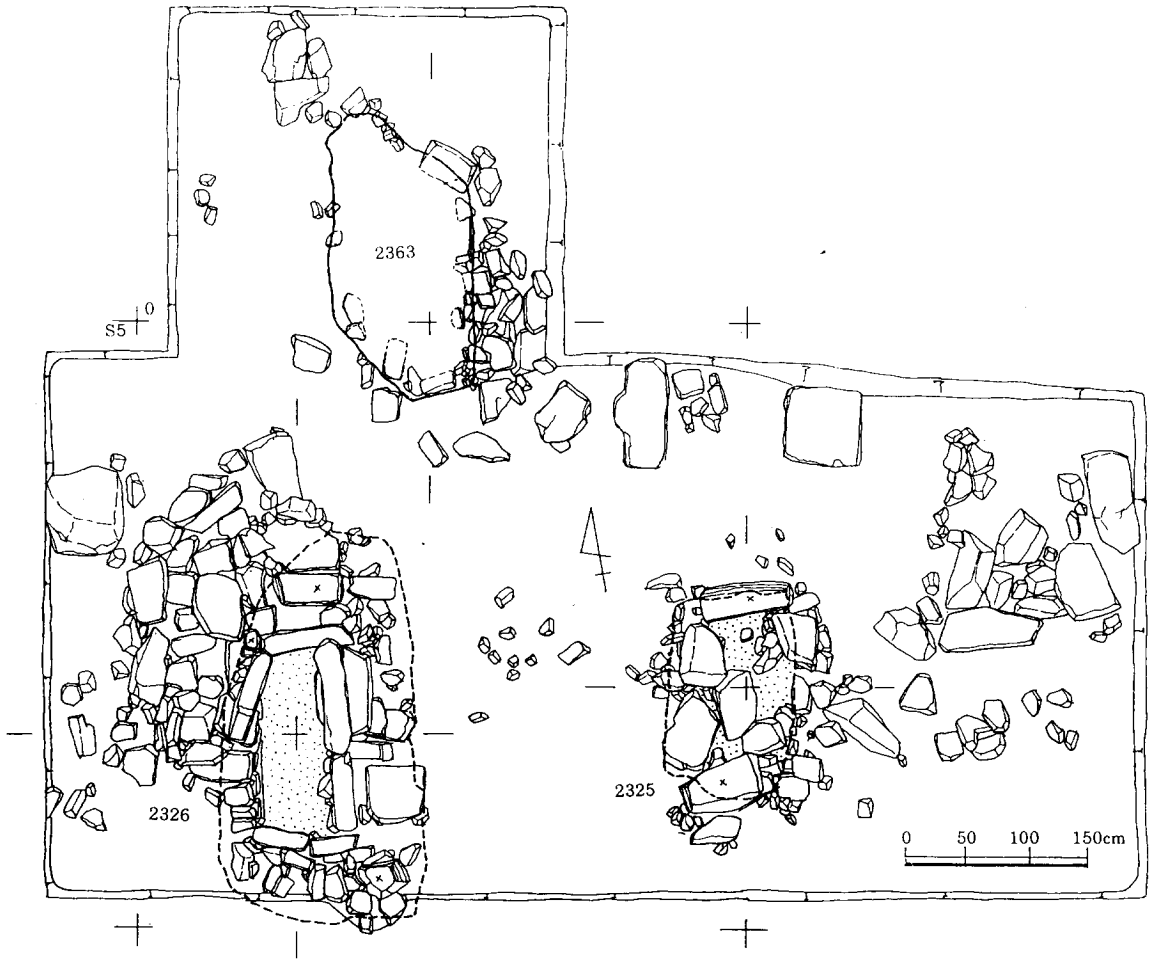
도 9 : 제2327·2323호 발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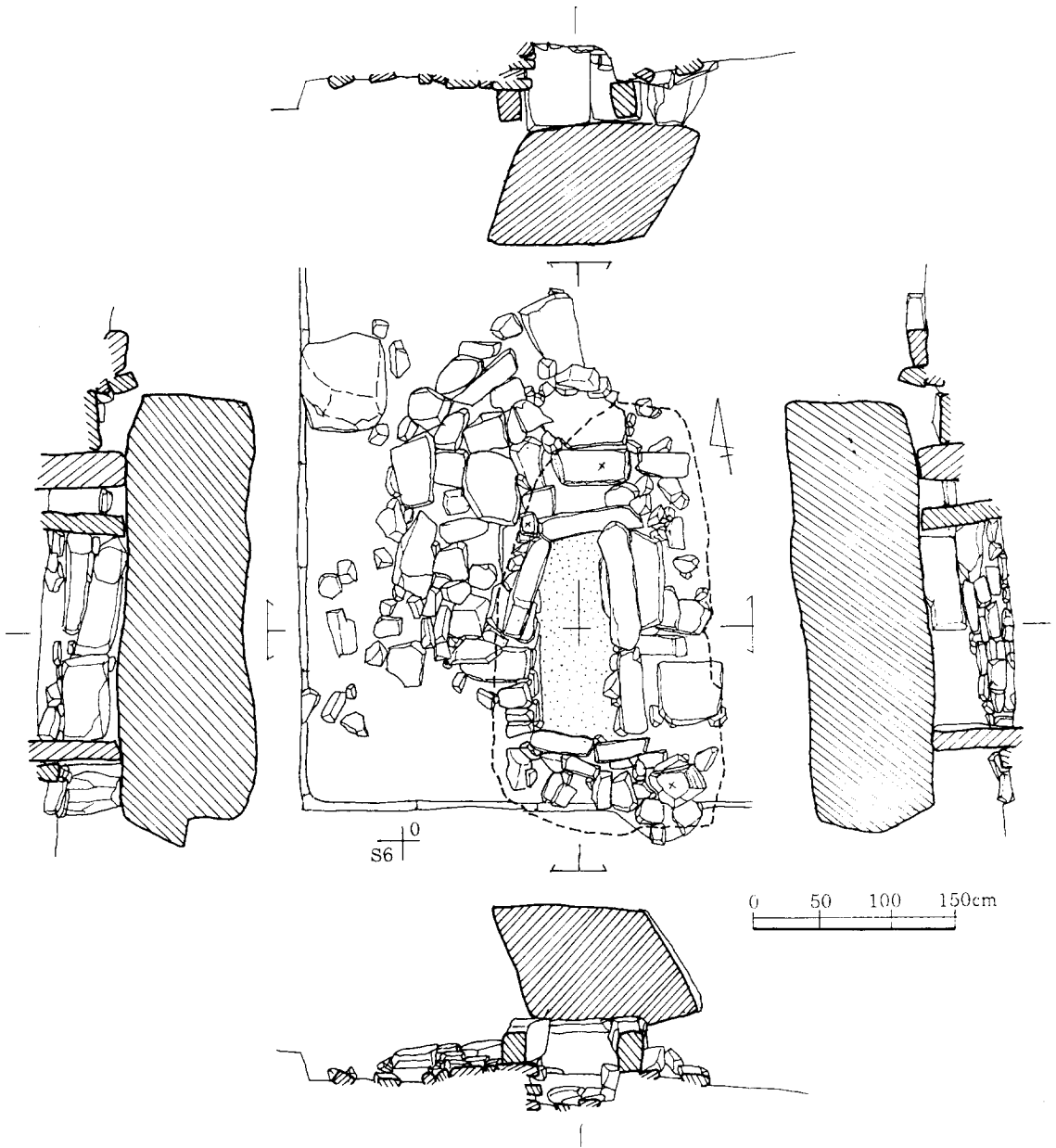
도 10 : 제2327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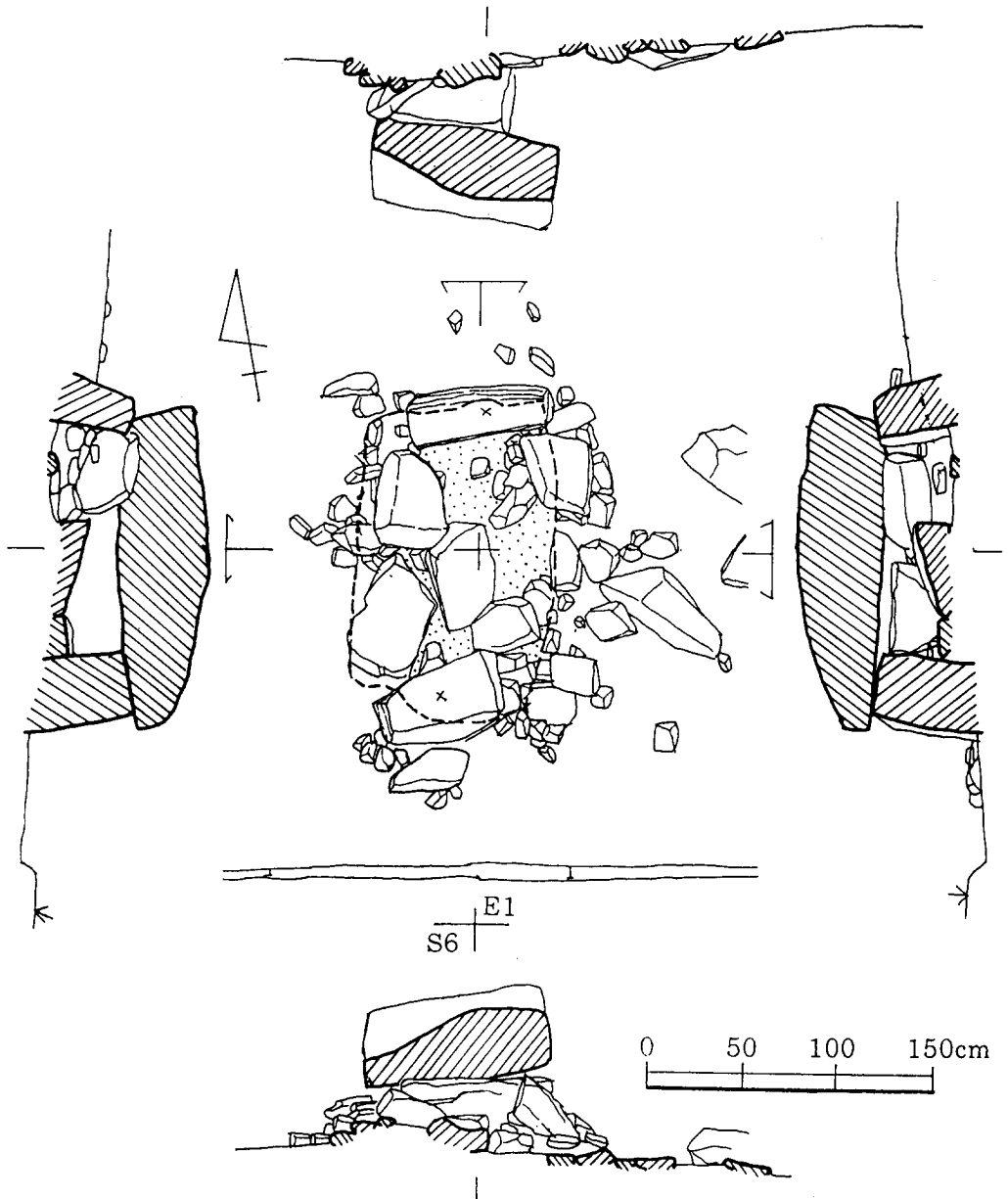
도 11 : 제2323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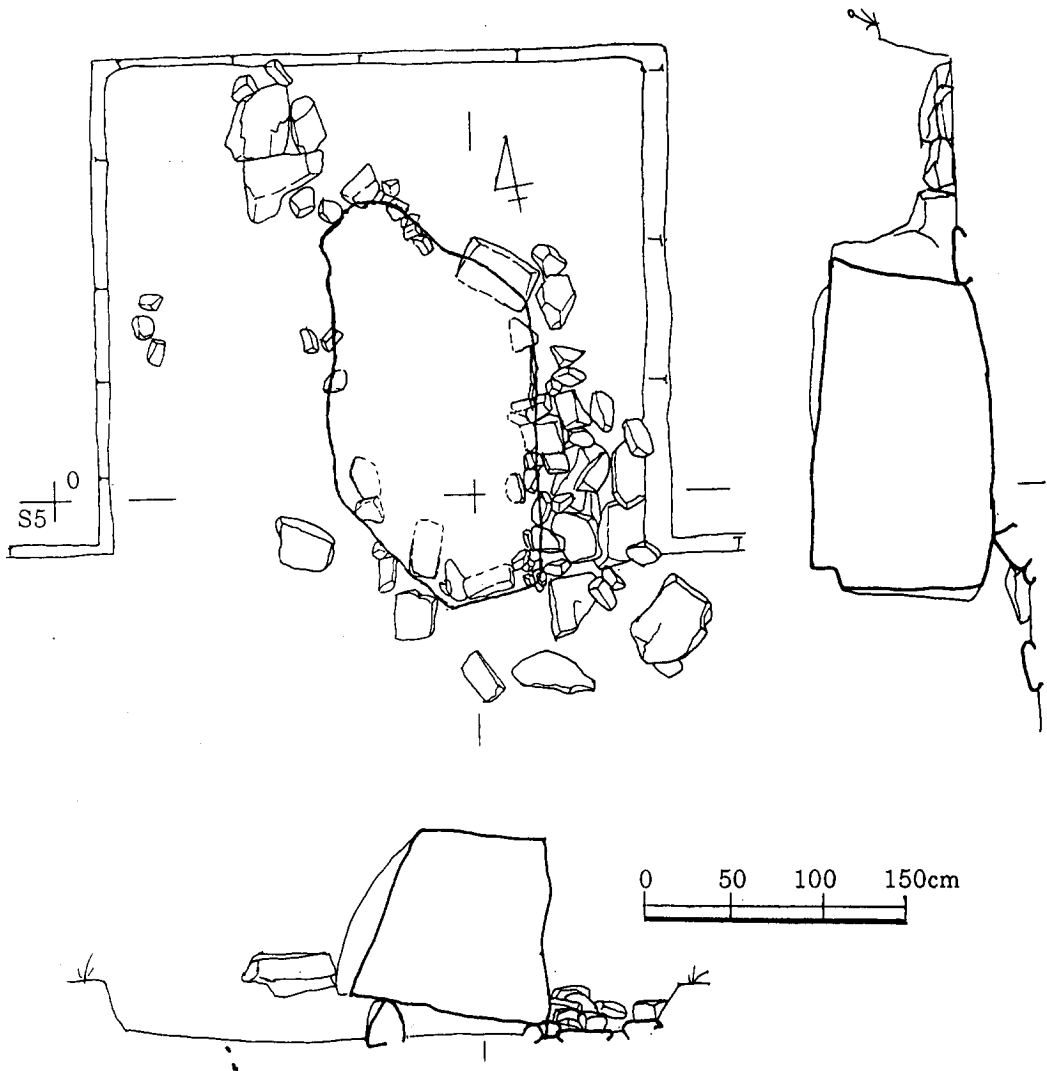
도 12 ; 제2326 · 2363 · 2325호 발굴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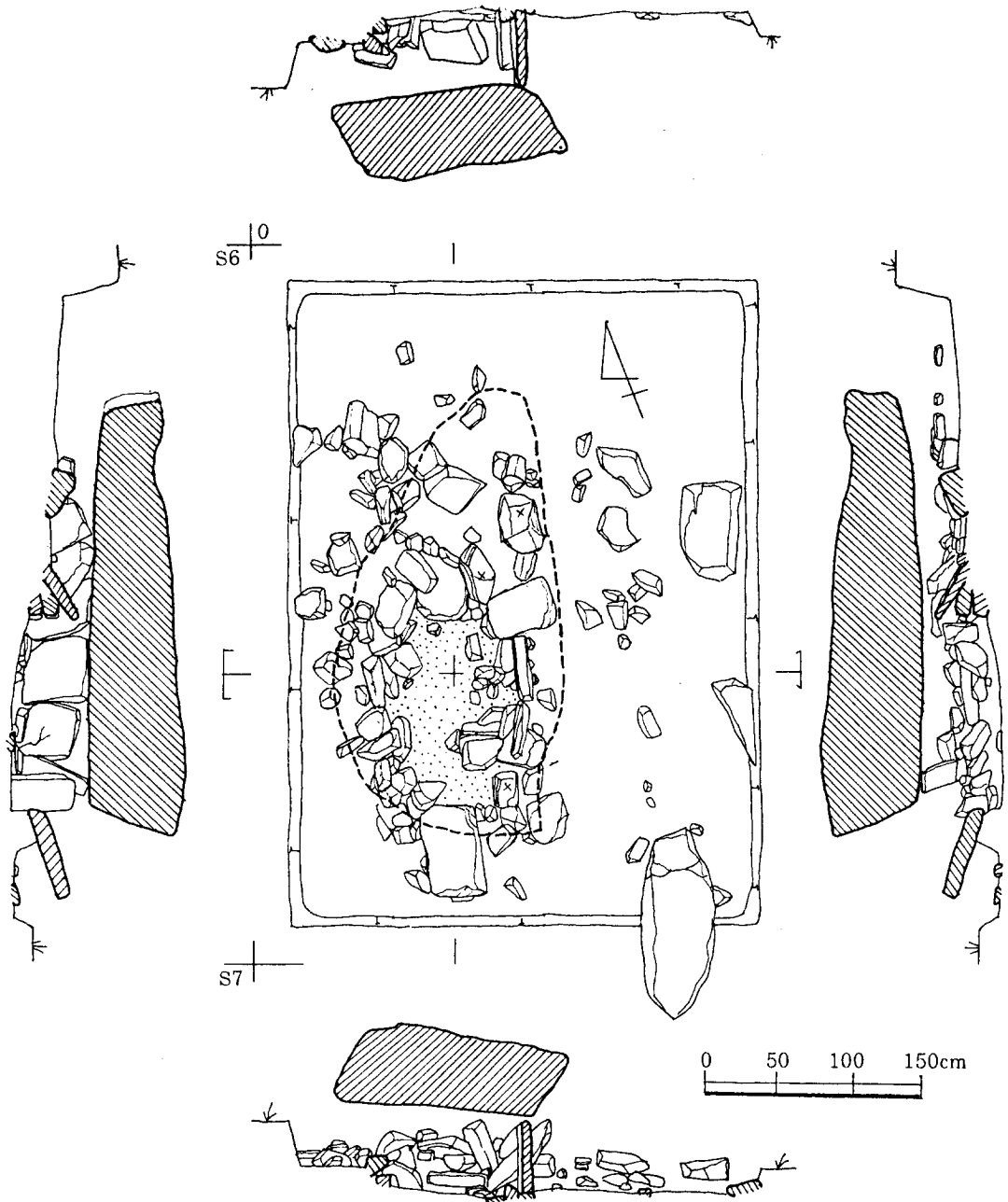
도 13 : 제2326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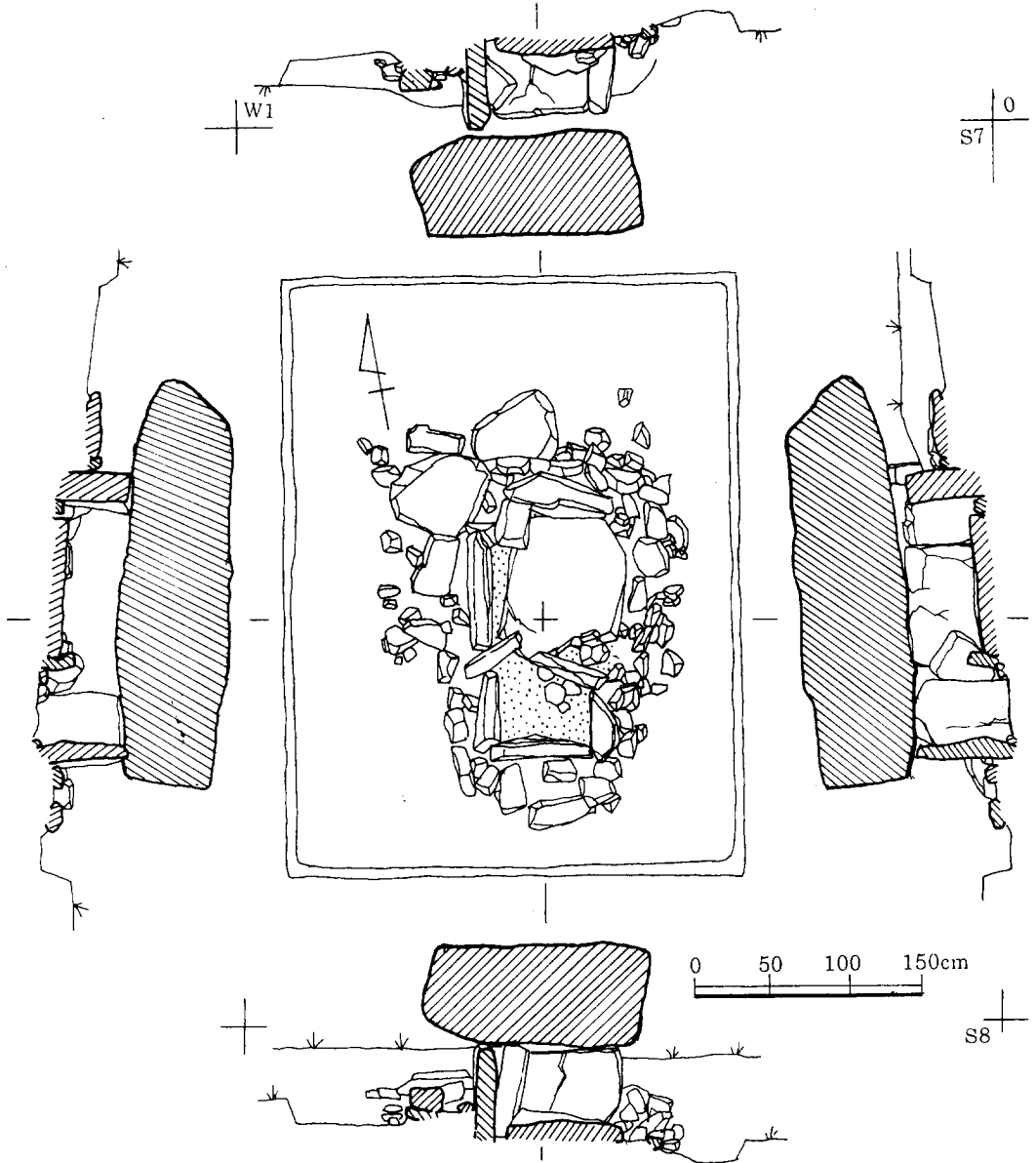
도 14 : 제2325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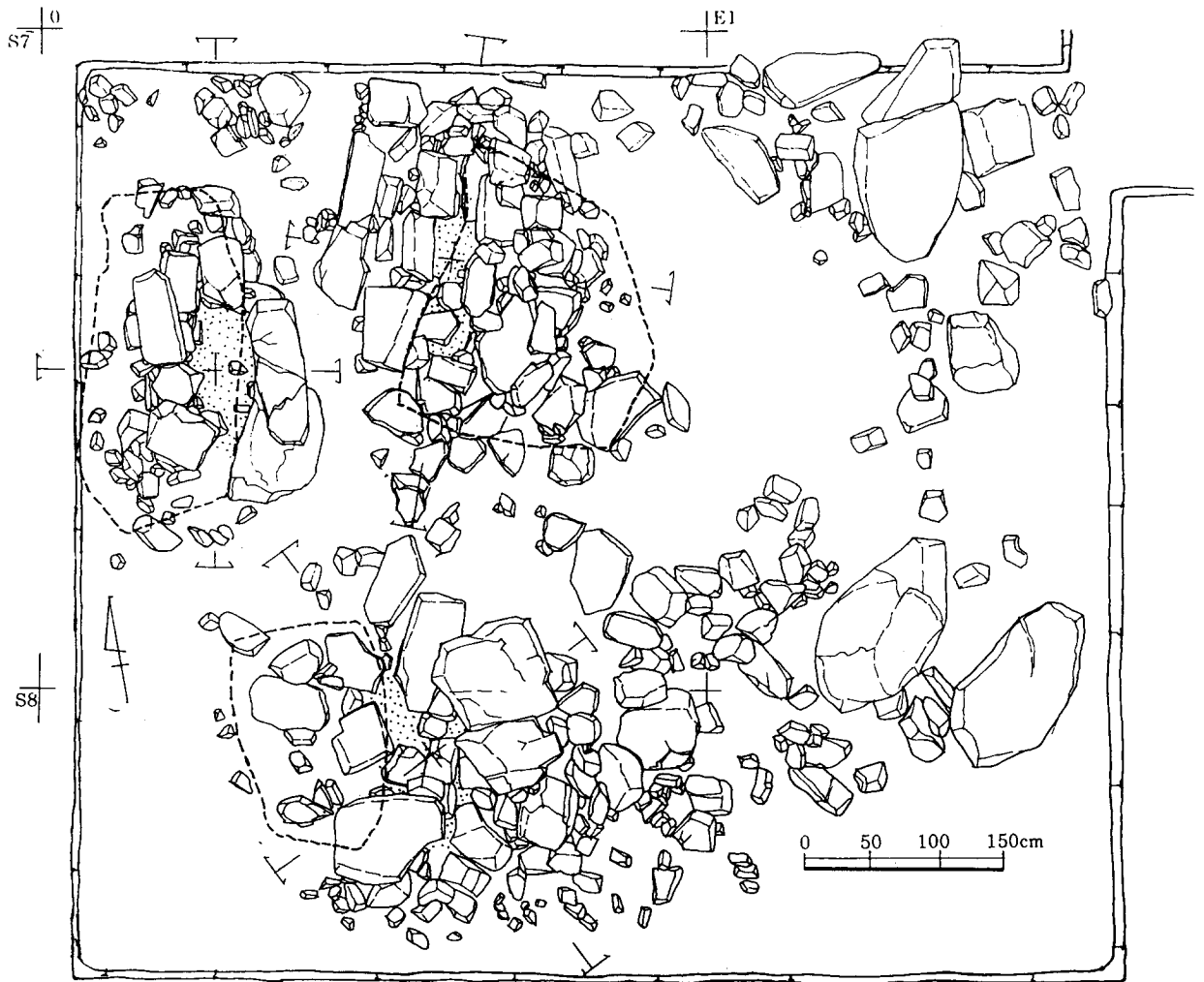
도 15 : 제2363호 지석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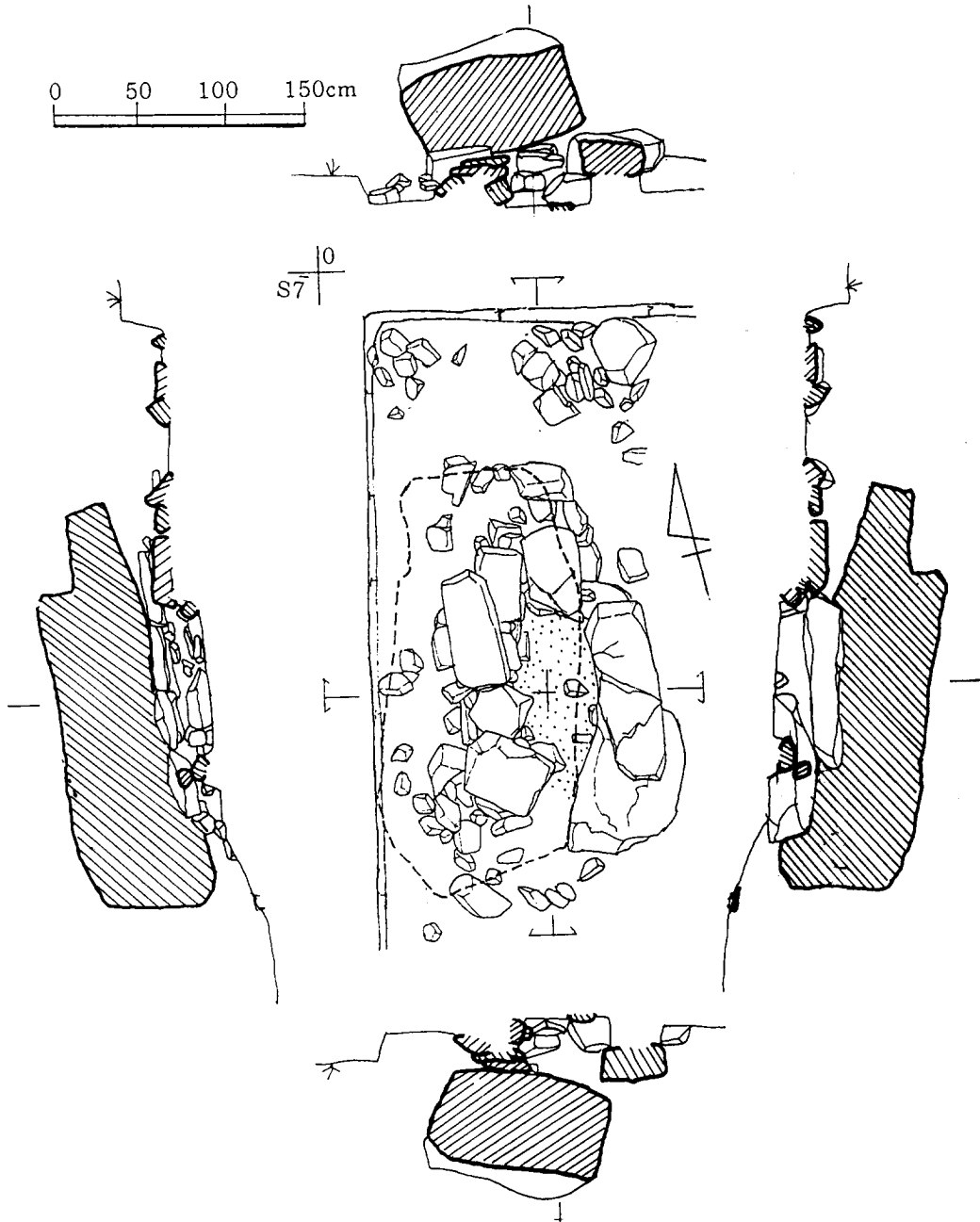
도 16 : 제2324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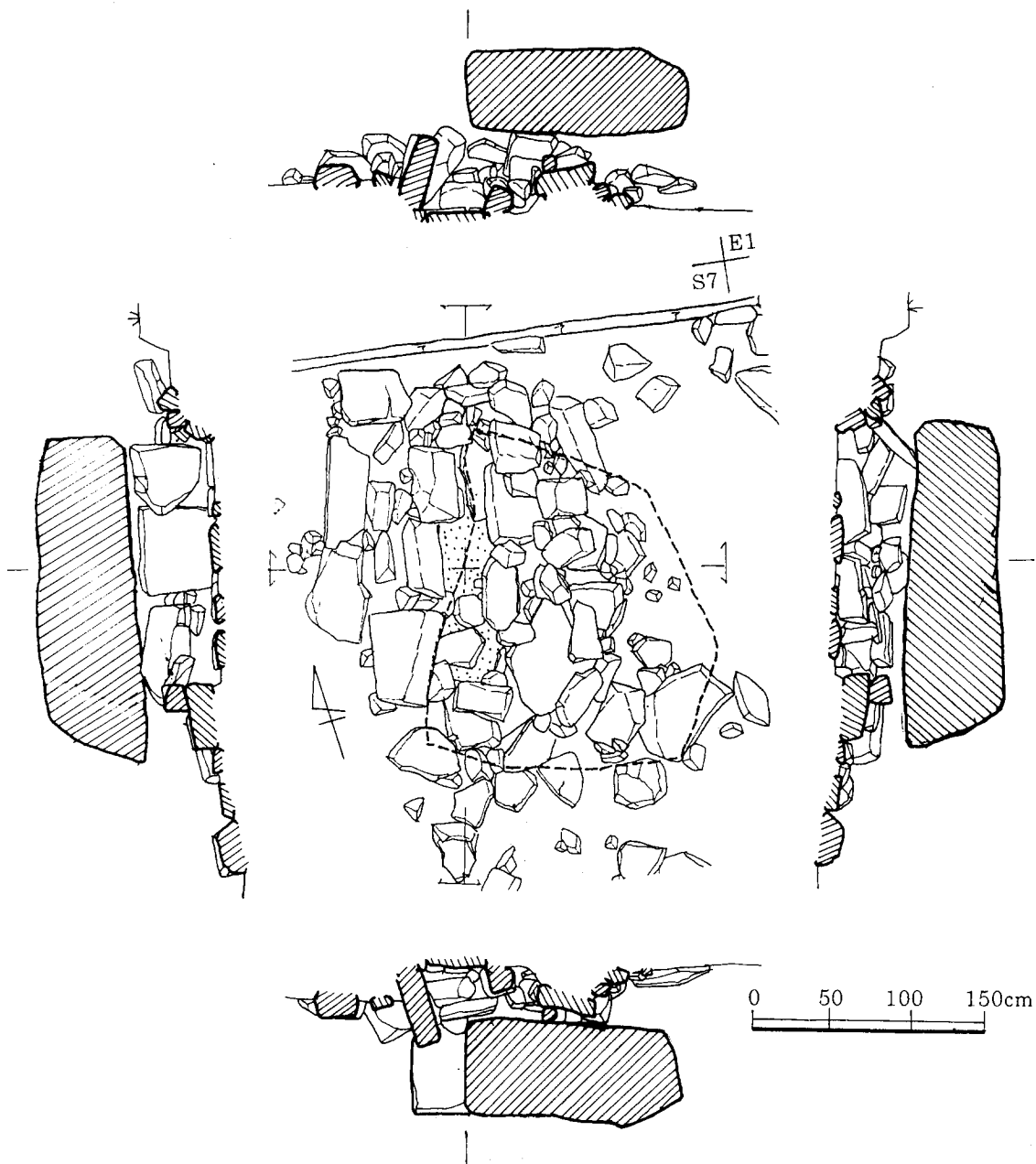
도 17 ; 제2322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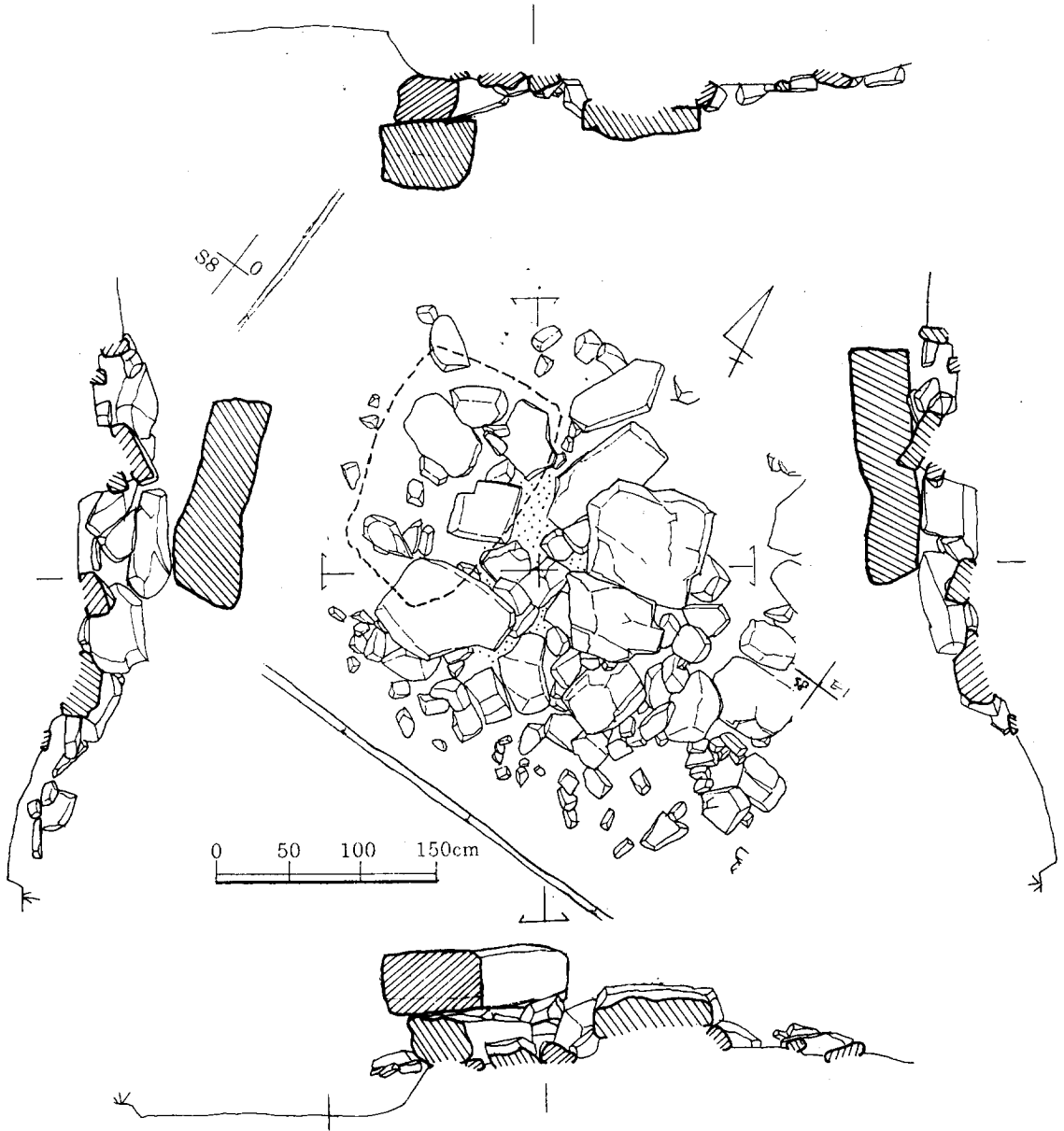
도 18 : 제2321~2319호 지석묘 발굴 평면도



도 19 : 제2321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도 20 : 제2320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도 21 : 제2319호 지석묘 발굴 실측도

圖 22 : 제2428호 지석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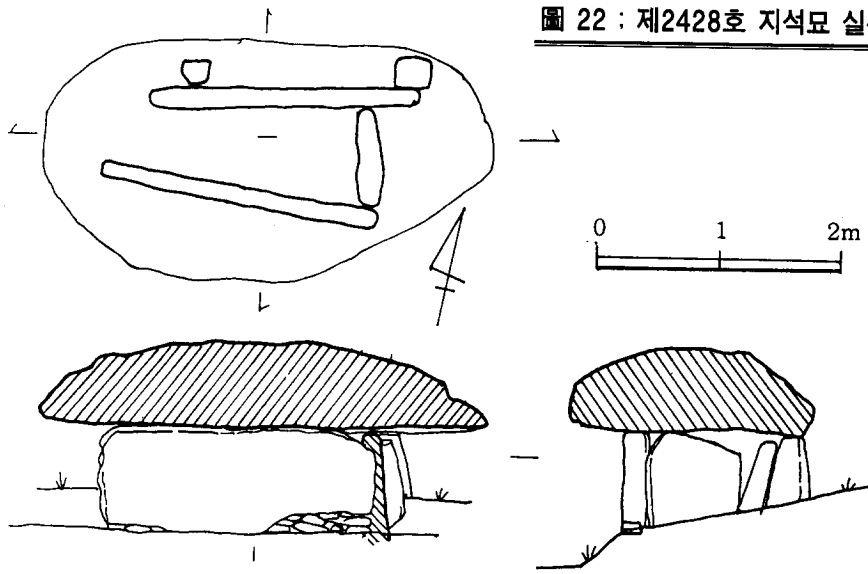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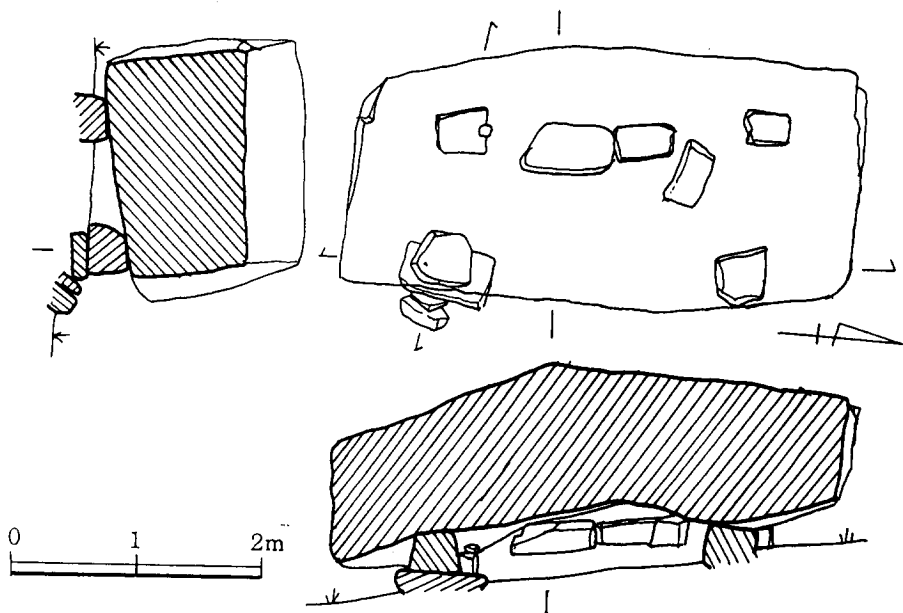


圖 23 : 제2308호 지석묘 실측도



[寫 眞]



사진1 : 죽림리 지석묘군
발굴전 전경 (북에서)



사진2 : 지석묘군
발굴전 전경 (남에서)



사진3 : 제2333호
발굴후 전경 (북에서)



사진4 : 제2333호
지석묘 발굴전 (남에서)



사진5 : 제2333호
지석묘 발굴전 (서에서)



사진6 : 제2333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7 : 제2333호
지석묘 발굴후 (북에서)



사진8 : 제2333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9 : 제2333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10 : 제2332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11 : 제2332호
지석묘 개석제거후 (남에서)



사진12 : 제2333호
지석묘부근 발굴후 (북에서)



사진13: 제2331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14: 제2331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15: 제2331호
지석묘 발굴후 (북에서)



사진16: 제2330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17: 제2330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18: 제2330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19: 제2329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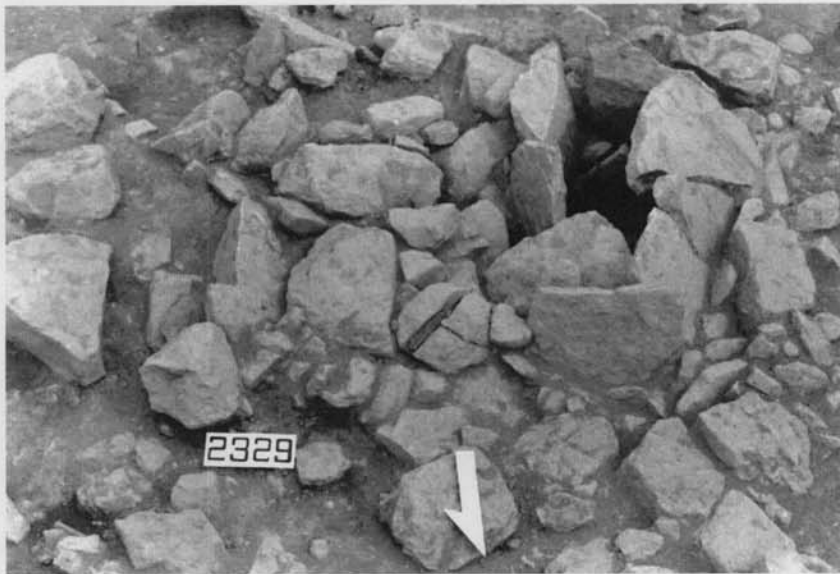


사진20: 제2329호
지석묘 발굴후 (북에서)



사진21: 제2329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22: 제2328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23: 제2328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24: 제2328호
지석묘 발굴후 (북에서)



사진25: 제2327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26: 제2327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27: 제2327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28: 제2327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29: 제2363호
지석묘 청리후 (서에서)



사진30: 제2326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31: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32: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33: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34: 제2326호
지석묘 발굴후 (서북에서)



사진35: 제2325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36: 제2325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37: 제2325호
지석묘 발굴후 (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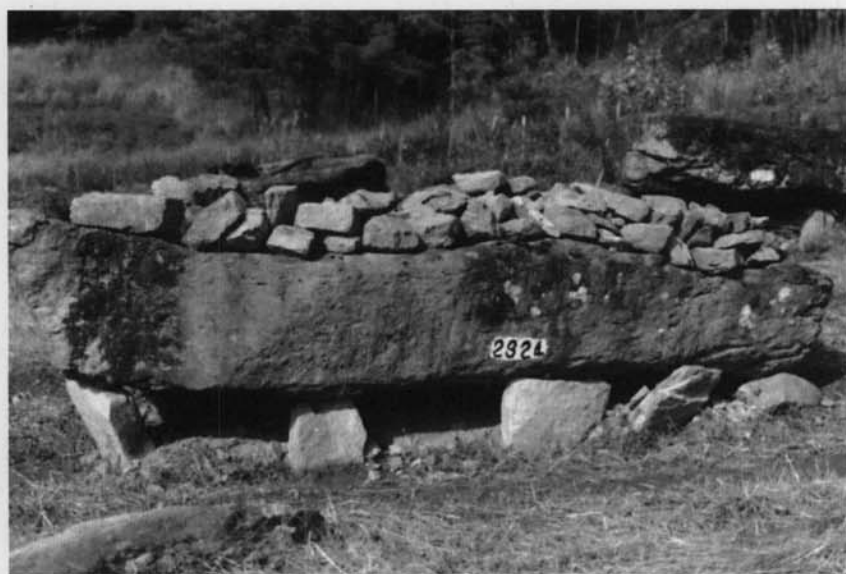


사진38: 제2324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39: 제2324호
지석묘 개석제거후 (북에서)

사진40: 제2324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41: 제2323호
지석묘 발굴전 (서에서)



사진42: 제2323호
지석묘 개석제거후 (남에서)





사진43: 제2323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사진44: 제2323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45: 제2322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46: 제2322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47: 제2322호
지석묘 발굴후 (북에서)



사진48: 제2321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49: 제2321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50: 제2321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51: 제2320호
지석묘 발굴전 (서에서)

사진52: 제2320호
지석묘 개석제거후 (북에서)



사진53: 제2320호
지석묘 개석제거후 (서에서)



사진54: 제2320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55: 제2320호
지석묘 발굴후 (서에서)



사진56: 제2319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57: 제2319호
지석묘 매토제거후 (동에서)

사진58: 제2319호
지석묘 발굴후 (남에서)



사진59: 제2318호
지석묘 발굴전 (동에서)



사진60: 제2318호
지석묘 발굴후 (동에서)

